

보 도 자 료

담 당 과	사회복지통계과
담 당 과 장	정화옥(鄭花玉)
담 당 사무관	김광열(金光烈)
전 화 번 호	(042)481-2276, 73, 75

- ▷ 이 자료는 2007년 11월 28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에도 있습니다.

2007년
사 회 통 계 조 사 결 과
(복지,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2007. 11.

- 사회통계조사는 사회지표체계 11개 부문 중 매년 3~4개 부문을 선정하여 부문별 3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이 자료는 복지,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부문에 대하여 전국 약 33,000 표본가구내 상주하는 만15세 이상 가구원 약 70,000명을 대상으로 2007. 6. 17.~6. 26.(10일)간 조사 집계한 것임



통 계 청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7년 사회통계조사 결과

(복지,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2007. 11.



통 계 청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이용시 유의사항

□ 각 통계표에서 지표의 성격에 따라 조사대상 연령, 조사대상 기간(시점)이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 연령

- 연령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15세 이상 인구 대상임
- 노인복지 중 10번 “노후 준비방법 항목”은 18세 이상 인구 대상임
- 노인복지 중 10번 이외의 항목은 60세 이상 인구임
- 아동생활실태 중 16번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곳” ~ 21번 “안전한 놀이 장소 항목”은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임

○ 조사대상 기간

- 조사대상 기간(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2007년 6. 15.현재임
- 「지난 1년」은 2006. 6. 15. ~ 2007. 6. 14. 동안임
- 「지난 1개월」은 2007. 5. 15. ~ 6. 14. 동안임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지역(시·도)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제공되고 있음

목 차

I . 2007년 사회통계조사 개요	3
---------------------------	---

II . 2007년 사회통계조사 결과	4
----------------------------	---

【 복지 】

I . 일반복지

1. 생활여건의 변화	4
2.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5
3.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6

II . 장애인복지

4.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7
5. 장애인에 대한 견해	8
6. 장애인 관련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	9
7.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정도	10
8.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11
9.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12

III . 노인복지

10. 노후 준비방법	13
11.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14
12. 생활비 마련방법	15
13. 현재 자녀와 동거여부	16
14. 향후 자녀와 동거 의향	17
15.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18

IV. 아동생활실태

16.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곳	19
17. 방과 후 시간의 활용	20
18. 학습 방법	21
19. 해외여행 경험	22
20. 놀이 방법 및 장소	
20-1. 방과 후 학습 외 활동(놀이 방법)	23
20-2. 방과 후 놀이 장소	24
21. 안전한 놀이 장소	25
22. 아동 양육의 어려운 점	26

【 문화와 여가 】

1. 신문 구독	27
2. TV 시청 시간	28
3. 독서 인구	29
4. 레저시설 이용자	30
5.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31
6.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	32
7.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33
8. 여가활용 만족 여부	34
9. 국내 관광여행 횟수	35
10. 여행지에서 불편한 점	36
11. 해외여행 경험 및 횟수	37
12. 지역문화 예술행사	38
13.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39

【 소득과 소비 】

1. 소득 만족도	40
2. 현재 소득 수준에 대한 인식	41
3. 장래 소득에 대한 기대	42
4. 소득분배에 대한 견해	43
5. 소비생활 만족도	44

III. 통 계 표	45
------------------	----

I . 2007년 사회통계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국민들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질적 수준과 사회상태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사회개발 정책자료로 제공

2. 조사연혁

- 1977년 3월 최초로 조사
 - 1979년 이후 매년 조사하여 한국의 사회지표에 수록 공표(1979~1995)
- 1996년 이후 사회통계조사 결과 자체공표 및 보고서 발간

3. 조사대상 및 기간

- 조사대상 : 전국 약 33,000 표본가구의 만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기간 : 2007. 6. 17. ~ 6. 26.(10일간)

4. 조사내용

- 2007 조사 : 복지,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 ※ 총 11개 부문 중 매년 3~4개 부문을 3년 주기로 조사
 - 1) 가족 2) 소득과 소비 3) 노동 4) 교육 5) 보건 6) 주거와 교통
 - 7) 환경 8) 복지 9) 문화와 여가 10) 안전 11) 사회참여

5. 조사방법 : 조사원 방문(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식 병행)

Ⅱ. 2007년 사회통계조사 결과

【 복 지 】

I. 일반복지

1. 생활여건의 변화

생활여건의 변화에서 3년 전보다 “좋아졌다”는 비율이 「보건의료 서비스」, 「문화여가생활 향유여건」 「전반적인 생활여건」, 「사회보장제도」 순으로 나타남

- 2007년 「전반적인 생활여건」, 「보건의료서비스」, 「사회보장제도」, 「문화여가생활 향유여건」이 3년 전(2004년)보다 “좋아졌다”는 비율이 각각 28.4%, 32.2%, 19.7%, 28.5%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서비스」의 비율이 가장 높음
-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생활여건」, 「문화여가생활 향유여건」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음

< 생활여건의 변화 >

(단위 : %)

	계	전반적인 생활여건			보건의료서비스			사회보장제도			문화여가생활 향유여건		
		좋아짐	변화 없음	나빠짐	좋아짐	변화 없음	나빠짐	좋아짐	변화 없음	나빠짐	좋아짐	변화 없음	나빠짐
2007	100.0	28.4	46.0	25.6	32.2	59.5	8.3	19.7	62.9	17.4	28.5	52.8	18.8
남 자	100.0	28.5	45.3	26.2	31.8	59.6	8.6	19.4	61.7	18.9	28.2	52.1	19.7
여 자	100.0	28.4	46.6	25.0	32.5	59.4	8.1	20.0	64.0	16.0	28.7	53.4	17.8
가구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100.0	17.3	47.0	35.6	33.2	55.2	11.6	20.3	62.2	17.5	19.6	57.6	22.7
100~200만원 미만	100.0	22.3	46.7	31.0	29.6	60.0	10.4	18.3	62.5	19.3	23.1	54.3	22.6
200~300만원 미만	100.0	30.5	47.0	22.5	31.2	61.8	7.0	19.2	63.6	17.1	29.2	53.0	17.7
300~400만원 미만	100.0	36.2	45.3	18.5	33.0	61.4	5.6	20.0	63.0	17.0	35.4	50.0	14.6
400~600만원 미만	100.0	43.2	42.2	14.5	36.7	58.5	4.8	22.4	63.0	14.6	41.9	45.7	12.3
600만원 이상	100.0	44.5	42.1	13.4	36.1	58.4	5.4	21.3	63.6	15.1	42.7	45.9	11.4

통계자료 49~52쪽

2.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향후 가장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은 「보건의료시설」임

-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은 「보건의료시설」이 39.7%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시설」 36.2%, 「공원·유원지」 33.1%, 「공용주차시설」 28.5% 순임
-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 모두 「보건의료시설」이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함
-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도서관」, 20대, 30대는 「공원·유원지」, 40대, 50대는 「보건의료시설」, 60대 이상은 「사회복지시설」을 가장 필요한 시설로 봄
- 2005년에 비하여 「보육 시설」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공공시설이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감소함

<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복수응답) >

(단위 : %)

	보육 시설	어린이 놀이터	공원, 유원지	보건 의료 시설	사회 복지 시설	공영 주차 시설	문화 회관	도서관	체육 시설 및 경기장	쓰레기 소각장 등	기타
2005	22.3	9.6	34.5	46.2	54.8	35.1	21.1	21.6	20.1	15.4	0.4
2007	25.0	9.4	33.1	39.7	36.2	28.5	15.9	19.4	18.1	9.2	0.6
도 시(동 부)	26.1	9.4	34.2	38.9	35.6	30.6	15.9	20.9	18.5	8.5	0.4
농어촌(읍면부)	19.8	9.3	27.8	43.7	39.1	19.0	15.9	12.4	16.4	12.2	1.4
남 자	23.1	8.6	31.9	38.4	35.0	33.4	14.2	18.3	23.6	9.9	0.5
여 자	26.8	10.1	34.2	41.0	37.4	23.9	17.5	20.4	12.9	8.5	0.7
15~19세	14.0	7.6	44.1	23.4	26.2	13.8	27.2	48.9	31.8	5.8	0.4
20~29세	30.1	8.7	41.7	31.4	25.5	32.6	21.5	25.8	23.9	6.2	0.2
30~39세	36.4	17.1	38.8	35.6	25.7	31.0	17.3	24.1	19.2	5.9	0.2
40~49세	20.0	7.5	29.9	42.0	39.7	34.9	15.6	19.2	19.0	11.0	0.4
50~59세	22.8	6.5	26.2	46.6	45.0	33.8	10.8	7.9	13.9	14.6	0.5
60세이상	19.1	6.3	22.2	52.0	52.7	15.8	8.0	3.4	7.3	10.9	1.7

통계자료 53쪽

3.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가장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는 10명 중 7명 정도가
「노인 돌봄 서비스」라고 생각함

-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는 「노인 돌봄 서비스」가 66.4%로 가장 많고,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자녀 양육서비스」 48.2%, 「저소득층 아동자립 자금 지원서비스」 40.0%, 「장애인 돌봄 서비스」 24.9% 순임
- 도시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농촌지역에 비해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음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30대는 「맞벌이 및 한 부모 가구 자녀양육 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 순이며, 40대 이상부터는 「노인 돌봄 서비스」 「맞벌이 및 한 부모 가구 자녀양육 서비스」 순임

<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복수응답) >

(단위 : %)

	노인 돌봄 서비스	산모 신생아 돌봄 서비스	장애인 돌봄 서비스	맞벌이및 한부모가구 자녀양육 서비스	비만아 동관리 서비스	저소득층 아동자립 자금지원 서비스	장애인재 활지원서 비스	장애아교 육서비스	기타
2007	66.4	15.1	24.9	48.2	6.7	40.0	18.6	8.2	0.5
도 시(동 부)	66.1	15.6	25.2	50.0	6.9	40.9	19.1	8.4	0.4
농어촌(읍면부)	68.0	13.0	23.6	40.2	5.8	35.5	16.1	7.2	1.0
남 자	66.1	14.4	25.6	47.6	6.5	41.7	19.7	7.8	0.4
여 자	66.7	15.8	24.2	48.9	6.9	38.3	17.5	8.5	0.5
15~19세	53.8	13.9	28.2	42.4	16.3	43.5	20.1	13.8	0.4
20~29세	54.8	24.5	24.7	60.1	6.3	44.8	17.9	8.9	0.2
30~39세	59.8	19.3	22.8	63.7	6.9	44.4	17.9	9.4	0.4
40~49세	70.4	9.8	25.7	45.5	8.4	43.1	21.8	8.5	0.3
50~59세	74.1	13.0	25.9	41.5	4.4	36.8	19.9	7.0	0.5
60세이상	80.5	9.5	24.2	29.4	2.1	26.9	14.2	4.0	1.0

통계자료 54쪽

II. 장애인 복지

4.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는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6.3%인 반면, 「자신」은 장애인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8.7%임

-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정도에 대해 「전혀·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3.8%인 반면, 「심하다」는 76.3%로 나타남
 - 사회의 장애인 차별정도에 대해 장애인의 경우는 「전혀·별로 없다」가 29.1%로 비장애인 23.5%보다 높게 나타났음
- 평소 자신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정도에 대해서는 「전혀·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88.7%, 「심하다」가 11.2%에 불과하여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인식 간에 차이를 보였음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

(단위 : %)

	계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조금 심함	심함	매우 심함
<사회의 장애인 차별>						
2005	100.0	2.3	23.2	43.9	20.3	10.4
2007	100.0	2.3	21.5	43.4	22.7	10.2
장애인 ¹⁾	100.0	3.8	25.3	40.6	19.0	11.2
1~2급	100.0	3.8	18.6	40.3	22.4	15.0
3~4급	100.0	4.2	24.2	39.9	21.1	10.6
5~6급	100.0	3.6	29.3	41.2	16.0	9.9
비장애인	100.0	2.2	21.3	43.5	22.9	10.1
<자신의 장애인 차별>						
2005	100.0	17.4	71.7	9.5	1.1	0.3
2007	100.0	18.4	70.3	9.6	1.2	0.4
장애인	100.0	33.5	63.3	2.4	0.4	0.4
1~2급	100.0	38.5	58.6	2.4	0.1	0.4
3~4급	100.0	32.6	64.2	2.2	0.4	0.6
5~6급	100.0	32.0	64.8	2.6	0.4	0.2
비장애인	100.0	17.8	70.6	9.9	1.2	0.4

주: 1)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유한 등록장애인을 지칭함(이하 동일)

통계자료 55~56쪽

5. 장애인에 대한 견해

장애인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장애를 고려하여 더 배려해야 함」이 63.3%로 가장 많음

- 장애인을 대하는 시각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장애를 고려하여 더 배려해야 함」이 63.3%,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해야 함」이 32.2%, 「장애를 현실로 인정하고 차별해서 대할 수 밖에 없음」이 4.4%로 나타남
- 2005년과 비교하면 「장애를 고려하여 더 배려해야 함」이 1.4%p, 「장애를 현실로 인정하고 차별해서 대할 수 밖에 없음」이 0.4%p 감소한 반면,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해야 함」이 1.7%p 증가함
-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해야 함」에 대한 의견은 장애인(32.9%)이 비장애인(32.2%)보다 높고,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장애인에 대한 견해 >

(단위 : %)

	계	장애를 고려하여 더 배려해야 함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해야 함	장애를 현실로 인정하고 차별해서 대할 수 밖에 없음
2005	100.0	64.7	30.5	4.8
2007	100.0	63.3	32.2	4.4
장애인	100.0	64.0	32.9	3.0
1~2급	100.0	65.9	30.8	3.3
3~4급	100.0	63.1	33.1	3.7
5~6급	100.0	63.7	33.8	2.5
비장애인	100.0	63.3	32.2	4.5
15~19세	100.0	58.2	37.2	4.6
20~29세	100.0	63.4	30.7	5.9
30~39세	100.0	64.1	31.8	4.1
40~49세	100.0	63.3	32.1	4.5
50~59세	100.0	64.1	32.0	3.9
60세 이상	100.0	63.9	32.3	3.7

통계자료 57쪽

6. 장애인 관련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

집근처에 장애인 관련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되지 않음」 34.4%, 「반대는 하지 않음」이 59.8%임

- 집근처에 장애인 관련시설(장애인 생활시설, 재활시설 등)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되지 않음」이 34.4%, 「반대는 하지 않음」 59.8%, 「반대하거나 절대로 안됨」 5.8%로 나타남
- 장애인의 경우 「전혀 문제되지 않음」이 53.2%, 「반대는 하지 않음」이 45.0%로 나타난 반면, 비장애인은 「전혀 문제되지 않음」이 33.6%, 「반대는 하지 않음」이 60.4%로 나타나 상호간 견해차를 보임
- 연령대별로 보면 「전혀 문제되지 않음」은 20대와 30대에서 타 연령대보다 관대하게, 「반대하거나 절대로 안됨」은 10대와 60세 이상에서 타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남

< 장애인 관련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 >

(단위 : %)

	계	전혀문제 되지않음	반 대 는 하지않음	반대하는 편 임	절대로 안 됨
2005	100.0	53.0	42.2 ¹⁾	4.4	0.4
2007	100.0	34.4	59.8	5.4	0.4
장애인	100.0	53.2	45.0	1.6	0.2
1~2급	100.0	61.2	36.8	1.6	0.4
3~4급	100.0	53.1	45.1	1.5	0.2
5~6급	100.0	49.5	48.7	1.7	0.1
비장애인	100.0	33.6	60.4	5.6	0.4
15~19세	100.0	32.2	60.2	6.7	0.9
20~29세	100.0	35.7	58.8	5.1	0.4
30~39세	100.0	35.4	59.3	5.0	0.2
40~49세	100.0	34.2	60.1	5.4	0.4
50~59세	100.0	32.1	62.4	5.2	0.3
60세 이상	100.0	35.1	58.6	5.8	0.5

주 : 1) 2005년도에는 「내키지는 않지만 반대는 하지 않음」으로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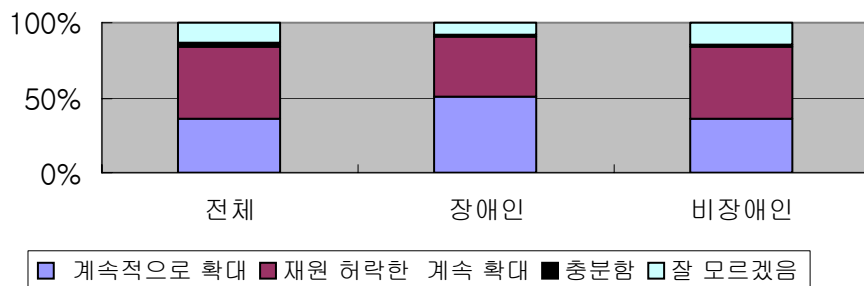
통계자료 58쪽

7.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정도

정부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의 충분성에 대해 47.4%가
「재원이 허락한다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함

- 장애인을 위하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에 대하여 「재원이 허락한다면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7.4%로 가장 많고, 「계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36.6%, 「충분하다」 2.2%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경우 「계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가 50.3%로 비장애인(36.1%)보다 높게 나타남
 - 또한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계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짐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정도



<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정도 >

(단위 : %)

	계	계속적으로 확대	재원이 허락한다면 계속 확대	충분함	잘 모르겠음
2005	100.0	74.0 ¹⁾	23.7 ²⁾	2.3	-
2007	100.0	36.6	47.4	2.2	13.8
도 시(동 부)	100.0	36.7	47.9	2.0	13.3
농어촌(읍면부)	100.0	36.3	44.6	3.0	16.1
장애인	100.0	50.3	40.7	0.9	8.1
1~2급	100.0	56.5	35.0	1.0	7.5
3~4급	100.0	51.9	38.2	1.2	8.7
5~6급	100.0	46.3	45.1	0.6	8.0
비장애인	100.0	36.1	47.6	2.2	14.1

주 : 1) 2005년도에는 「아직 미흡하지만 계속적으로 확대」로 조사함

통계자료 59쪽

2) 2005년도에는 「미흡하지는 않지만 재원이 허락하는 한 계속 확대」로 조사함

8.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정부가 우선 확대 실시하여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10명 중 5명이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이라고 생각함

- 향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8.9%로 가장 많고, 「의료비지원」 41.3%, 「장애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29.7%, 「장애수당의 지급」 28.1%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수당의 지급」 52.6%, 「의료비 지원」 47.0%,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32.1% 순으로 나타남
 - 장애등급별로 보면 1~2급, 3~4급 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 지급」을 가장 원하였고, 다음으로 「의료비 지원」을 원한 반면, 5~6급 장애인은 「의료비 지원」, 「장애수당지급」 순으로 확대실시를 원하였음

<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장애인복지사업(복수응답)¹⁾ >

(단위 : %)

	장애수 당지급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주거비 지원	자립자 금대여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사업	장애인 생활시 설 및 복지관 확충	재활 보조 기구 배부	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	장애인의 문화예술 행사참여 지원	장애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기타
2007	28.1	41.3	18.3	17.5	12.8	48.9	26.3	6.8	9.1	3.1	29.7	0.1
도 시(동 부)	26.7	41.2	18.7	17.6	13.1	50.3	26.9	6.9	9.2	3.1	30.6	0.1
농어촌(읍면부)	35.3	41.6	16.6	16.9	11.4	42.0	23.5	6.6	8.5	2.9	25.0	0.1
장애인	52.6	47.0	12.3	19.3	11.9	32.1	21.6	6.3	7.6	2.2	21.8	0.1
1~2급	65.4	45.9	9.8	20.2	8.6	25.1	21.7	8.7	11.2	2.5	17.7	0.0
3~4급	54.7	47.5	12.7	17.8	11.4	32.2	21.0	6.6	6.6	2.0	20.2	0.1
5~6급	45.3	47.2	13.2	20.0	13.7	35.2	21.8	4.9	6.6	2.2	24.9	0.1
비장애인	27.0	41.0	18.6	17.4	12.8	49.6	26.5	6.9	9.2	3.1	30.0	0.1

주 : 1) 장애인 복지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자 대상임

통계자료 60쪽

9.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8.2%가 참여하여, 2005년보다 0.3%p 낮아짐

- 지난 1년 동안(2006. 6. 15.~2007. 6. 14.)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8.2%로 2005년(8.5%)보다 0.3%p 감소하였음
 - 성별로는 여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8.6%로 남자 7.7%보다 높게 나타남
 -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활동분야는 「복지시설의 장애인」 73.9%, 「집에 있는 장애인」 20.1%, 「병원에 있는 장애인」 14.3% 순으로 나타남
- 지난 1년 동안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30.7%가 향후 장애인 관련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

<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복수응답)(지난 1년간) >

(단위 : %)

	계	참여한 적 있음	복지시설의 장애인	집에 있는 장애인	병원에 있는 장애인	기타	참여한 적 없음
2005	100.0	8.5	66.8	26.2	13.0	5.4	91.5
2007	100.0	8.2	73.9	20.1	14.3	4.0	91.8
남 자	100.0	7.7	75.1	21.2	12.8	3.1	92.3
여 자	100.0	8.6	72.9	19.2	15.6	4.8	91.4

통계자료 61쪽

< 향후 봉사활동 의사>

(단위 : %)

	계	경험 있음	소계	계속하겠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겠음	하고 싶지만 어려움	할 생각 없음	경험 없음	소계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겠음	하고 싶지만 어려움	할 생각 없음
2005	100.0	8.5	100.0	26.3	49.6	22.2	1.9	91.5	100.0	34.8	48.8	16.4
2007	100.0	8.2	100.0	27.8	49.2	21.3	1.7	91.8	100.0	30.7	48.3	21.0
남 자	100.0	7.7	100.0	26.8	50.2	21.4	1.6	92.3	100.0	31.1	49.3	19.6
여 자	100.0	8.6	100.0	28.6	48.3	21.3	1.8	91.4	100.0	30.3	47.4	22.4

통계자료 62쪽

Ⅲ. 노인복지

10. 노후 준비방법

10명 중 6명은 노후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방법은 「국민연금」, 「예금·적금」, 「사적연금」 순임

- 18세 이상 인구 중 노후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1.8%로 2005년(55.0%)에 비해 6.8%p 증가하였으며, 이들의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51.7%로 가장 많고, 「예금·적금(50.2%)」, 「사적연금(31.9%)」 순임
 - 노후 준비방법으로 남자는 「국민연금」, 여자는 「예금·적금」이 가장 많음
 - 연령대별로 보면 노후 준비율은 40대가 76.6%로 가장 높고 30대(74.4%), 50대(73.2%) 순이며, 노후준비 방법으로 40대, 50대는 「국민연금」을, 30대, 60세 이상의 경우는 「예금·적금」을 많이 하고 있음
-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38.2%) 중에 「앞으로 준비할 계획임」이 34.9%로 가장 많고, 「준비할 능력 없음(32.6%)」,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음(19.8%)」 순임
 -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60세 이상의 경우 「준비할 능력 없음」 48.0%, 「자녀에게 의탁」이 41.9%로 나타남

< 노후준비방법 (18세이상)(복수응답) >

(단위 : %)

	계	준비하고 있음	국민연금	기타공연금	사적연금	퇴직금	예금·적금	부동산운용	주식·채권	기타	준비하고 있지 않음	소계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음	앞으로 준비할 계획	준비능력 부족	자녀에게 의탁
2005	100.0	55.0	51.6	11.2	37.2	9.7	50.5	11.2	2.0	1.7	45.0	100.0	28.0	35.5	26.0	10.4
2007	100.0	61.8	51.7	8.2	31.9	8.6	50.2	11.5	3.1	0.2	38.2	100.0	19.8	34.9	32.6	12.6
도 시(동 부)	100.0	62.6	51.8	8.2	32.6	8.9	49.9	11.4	3.5	0.1	37.4	100.0	21.1	36.3	32.0	10.6
농어촌(읍면부)	100.0	58.2	51.0	8.0	28.7	7.2	51.8	12.0	1.5	0.3	41.8	100.0	14.8	29.1	35.2	20.8
남 자	100.0	66.9	58.5	8.3	29.5	10.2	46.2	11.4	3.4	0.2	33.1	100.0	24.3	37.2	31.1	7.4
여 자	100.0	57.0	44.1	8.0	34.6	6.9	54.6	11.7	2.8	0.2	43.0	100.0	16.6	33.3	33.7	16.4
18~29세	100.0	41.4	59.1	5.6	28.9	8.2	56.9	2.9	4.4	0.0	58.6	100.0	42.0	42.8	15.2	0.0
30~39세	100.0	74.4	51.3	7.8	40.1	9.4	52.4	8.3	4.0	0.1	25.6	100.0	18.1	58.5	23.2	0.2
40~49세	100.0	76.6	54.8	7.8	36.9	8.7	45.8	11.1	2.8	0.1	23.4	100.0	13.0	47.9	38.3	0.8
50~59세	100.0	73.2	56.6	8.3	25.7	8.1	46.7	14.5	2.3	0.2	26.8	100.0	8.1	34.3	50.6	7.0
60세 이상	100.0	42.2	30.4	12.5	16.2	7.9	52.8	24.6	1.9	0.6	57.8	100.0	3.1	7.0	48.0	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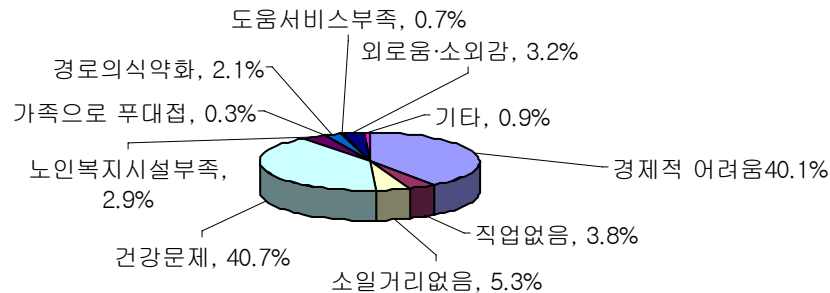
통계자료 64쪽

11.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60세 이상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남자는 「경제적인 어려움」, 여자는 「건강문제」로 나타남

- 60세 이상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은 「건강문제」가 40.7%로 가장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 40.1%, 「소일거리가 없음」 5.3%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경제적인 어려움」, 여자는 「건강문제」에 대하여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제적인 어려움」은 줄어드는 반면, 「건강문제」, 「외로움·소외감」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여짐
- 도시지역의 노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문제」, 「소일거리가 없음」 순으로 어렵다고 한 반면, 농어촌지역은 「건강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소외감」 순으로 어렵다고 함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60세이상 인구) >

(단위 : %)

	계	경제적인 어려움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	소일거리가 없음	건강문제	외로움·소외감	가족으로 부터 푸대접	사회에서의 경로의식 약화	일상생활 도움서비스 부족	노인복지 시설부족	기타
2005	100.0	45.6	6.1	6.8	27.1	6.3	1.8	1.8	-	4.4	0.1
2007	100.0	40.1	3.8	5.3	40.7	3.2	0.3	2.1	0.7	2.9	0.9
도 시(동 부)	100.0	41.8	4.4	6.3	37.1	3.0	0.3	2.5	0.7	3.0	0.7
농어촌(읍면부)	100.0	36.3	2.3	2.9	48.4	3.7	0.2	1.3	0.8	2.8	1.3
남 자	100.0	41.8	6.1	6.2	34.7	2.6	0.3	3.0	0.5	3.7	1.1
여 자	100.0	38.9	2.0	4.6	45.2	3.6	0.3	1.4	0.9	2.3	0.8
60~64세	100.0	44.2	7.1	5.1	33.5	2.1	0.3	2.9	0.9	2.8	1.0
65~69세	100.0	42.3	3.9	5.2	38.4	2.9	0.2	2.3	0.8	3.3	0.8
70~79세	100.0	37.1	1.7	5.6	45.6	3.7	0.3	1.7	0.5	2.7	1.1
80세 이상	100.0	31.7	0.4	4.9	51.8	5.8	0.2	0.6	0.8	3.3	0.5

통계자료 63쪽

12. 생활비 마련방법

노인의 생활비 마련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61.3%이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녀 또는 친척지원」이 늘어남

- 60세 이상 노인의 생활비 마련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61.3%로 가장 많고, 「자녀 또는 친척지원」 34.1%, 「정부 및 사회단체」 4.4% 순으로 나타남
 - 2005년과 비교하면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은 2.2%p 증가한 반면, 「자녀 또는 친척지원」은 2.1%p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여자는 「자녀 또는 친척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녀 또는 친척」에게 의지하는 비율이 높아짐
- 60세 이상 노인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65.0%)」, 「연금, 퇴직금(16.2%)」, 「재산소득(11.3%)」 순임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의한 생활비 마련방법은 줄어든 반면, 「재산소득」에 의한 방법은 늘어남

< 생활비 마련방법(60세이상 인구) >

(단위 : %)

	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정부 및 사회 단체	기타
			소계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연금, 퇴직금	예금		소계	함께 살고 있음	함께 살고 있지 않음		
2005	100.0	59.1	100.0	66.1	11.5	14.6	7.8	36.2	100.0	54.6	45.4	4.5	0.2
2007	100.0	61.3	100.0	65.0	11.3	16.2	7.5	34.1	100.0	53.3	46.7	4.4	0.1
도 시(동 부)	100.0	59.2	100.0	56.5	14.2	20.4	8.9	36.6	100.0	58.0	42.0	4.1	0.1
농어촌(읍면부)	100.0	66.0	100.0	81.7	5.6	7.8	4.8	28.7	100.0	40.2	59.8	5.2	0.0
남 자	100.0	77.0	100.0	66.4	10.2	16.8	6.6	19.8	100.0	46.2	53.8	3.2	0.0
여 자	100.0	49.5	100.0	63.2	12.7	15.4	8.6	45.0	100.0	55.7	44.3	5.4	0.1
60~64세	100.0	83.2	100.0	72.7	8.0	13.9	5.4	14.9	100.0	56.8	43.2	1.9	0.1
65~69세	100.0	68.4	100.0	65.0	11.2	16.4	7.4	27.5	100.0	52.8	47.2	4.0	0.1
70~79세	100.0	48.2	100.0	56.6	14.7	19.3	9.4	45.3	100.0	48.8	51.2	6.4	0.1
80세 이상	100.0	20.0	100.0	37.4	27.3	15.7	19.6	73.3	100.0	61.7	38.3	6.5	0.1

통계자료 68쪽

13. 현재 자녀와 동거여부

현재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노인은 10명 중 6명(60.1%) 정도이며,
그 이유는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가 33.7%로 가장 많았음

- 60세 이상 노인 중 39.9%가 현재 자녀와 같이 살고 있었음
 - 현재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은 도시지역이 46.3%로 농어촌지역(25.7%)보다 많게 나타남
 - 현재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이유는 「본인의 독립생활 불가능」 36.0%, 「자녀의 독립생활 불가능」 29.2%, 「모두 독립생활이 가능하지만 같이 살고 싶어서」 17.4% 순임
- 현재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노인은 60.1%이며, 그 이유는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 33.7%, 「독립생활이 가능」 26.0%,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 21.3%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자녀와 동거여부 및 이유 (60세이상 인구) >

(단위 : %)

	계	같이 살고 있음	현재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이유						
			소 계	본인의 독립생활 불가능	자녀의 독립생활 불가능	손자녀의 양육 및 자녀의 가사를 돕기위해	모두 독립생활이 가능하지만 같이 살고 싶어서	자녀가 학생 또는 미성년자이므로	기 타
2005 ¹⁾	100.0	40.9	100.0	-	-	-	-	-	-
2007	100.0	39.9	100.0	36.0	29.2	12.1	17.4	3.9	1.4
도 시(동 부)	100.0	46.3	100.0	35.7	28.7	12.8	17.5	4.1	1.3
농어촌(읍면부)	100.0	25.7	100.0	37.2	31.4	9.5	16.9	3.3	1.7

	계	같이 살고 있지 않음	현재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이유						
			소 계	독립생활이 가능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	자녀의 직장, 학업 때문에	자녀와의 불화때문에	기타
2005	100.0	59.1	100.0	20.3	16.0	38.3	20.6	1.6	3.0
2007	100.0	60.1	100.0	26.0	21.3	33.7	15.1	1.6	2.3
도 시(동 부)	100.0	53.7	100.0	26.3	22.5	34.8	11.6	2.1	2.7
농어촌(읍면부)	100.0	74.3	100.0	25.6	19.4	31.9	20.8	0.7	1.6

주 : 1) 2005년에는 같이 살고 있는 이유는 조사하지 않음

통계자료 66쪽

14. 향후 자녀와 동거 의향

60세 이상 노인 중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가 10명 중 6명임

- 60세 이상 노인 중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는 40.0%,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60.0%로 나타남
 - 2005년과 비교하면 「같이 살고 싶다」는 노인이 7.5%p 감소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는 노인이 많아짐
-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살고 싶은 곳으로 「자기집」 84.9%, 「무료 양로원 또는 요양원」 9.8%, 「유료 양로원 또는 요양원(실버타운 등)」 4.8% 순임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기집」에서 살고 싶은 노인은 줄어든 반면, 「무료 양로원 또는 요양원」에서 살고 싶은 노인은 늘어남

< 향후 자녀와 동거 의향 (60세이상 인구) >

(단위 : %)

	계	같이 살고 싶음	같이 살고 싶지않음	살고 싶은 곳				
				소 계	자기집	무료 양로원 또는 요양원	유료 양로원 또는 요양원	기 타
2005	100.0	47.5	52.5	100.0	85.3	8.9	4.5	1.3
2007	100.0	40.0	60.0	100.0	84.9	9.8	4.8	0.5
도 시(동 부)	100.0	40.2	59.8	100.0	82.5	11.2	5.8	0.5
농어촌(읍면부)	100.0	39.7	60.3	100.0	90.1	7.0	2.6	0.4
남 자	100.0	33.9	66.1	100.0	87.8	7.8	4.1	0.3
여 자	100.0	44.6	55.4	100.0	82.2	11.7	5.4	0.7
60~64세	100.0	33.1	66.9	100.0	86.1	8.2	5.3	0.4
65~69세	100.0	36.5	63.5	100.0	85.2	9.3	5.1	0.4
70~79세	100.0	43.6	56.4	100.0	84.8	10.6	4.0	0.6
80세 이상	100.0	58.9	41.1	100.0	77.7	16.5	5.2	0.6

통계자료 69쪽

15.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6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받고 싶은 복지 서비스는 「건강검진」으로 10명 중 4명임

- 60세 이상 노인의 76.8%가 평소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응답함
 - 2005년과 비교하면 「받고 싶다」는 비율이 4.2%p 증가함
-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는 「건강검진」 40.4%, 「간병서비스」 21.5%, 「취업알선」 12.0% 순으로 나타남
 - 남자는 여자보다 「취업알선」, 여자는 남자보다 「간병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선호함
 - 「간병서비스」, 「목욕서비스」, 「식사제공」, 「이야기상대」 서비스는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알선」, 「취미여가프로그램」, 「정보화 등 각종 교육」 서비스는 연령이 낮을수록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60세 이상) >

(단위 : %)

	계	받고 싶음	소계	간병 서비스	목욕 서비스	가사 서비스	식사 제공	이야기 상대	취업 알선	건강 검진	취미 여가 프로그램	정보 화 등 종 교 육	기타
2005	100.0	72.6	100.0	17.5	3.1	6.9	4.0	2.7	12.2	45.1	6.5	1.6	0.4
2007	100.0	76.8	100.0	21.5	2.5	8.1	3.5	2.7	12.0	40.4	7.7	1.4	0.2
도 시(동 부)	100.0	79.1	100.0	20.0	2.3	7.6	3.2	2.7	14.0	40.3	8.1	1.5	0.3
농어촌(읍면부)	100.0	71.5	100.0	25.3	3.0	9.4	4.1	2.6	7.2	40.6	6.6	1.0	0.1
남 자	100.0	77.2	100.0	18.3	1.9	5.4	3.1	1.9	17.9	40.8	8.3	2.2	0.3
여 자	100.0	76.4	100.0	24.0	3.0	10.2	3.7	3.3	7.5	40.1	7.3	0.7	0.2
60~64세	100.0	77.8	100.0	16.5	1.6	6.6	2.1	1.3	19.6	40.2	9.5	2.4	0.1
65~69세	100.0	77.1	100.0	18.2	2.1	7.2	2.9	2.1	13.4	44.1	8.1	1.7	0.2
70~79세	100.0	75.2	100.0	24.3	3.0	9.8	4.4	3.1	7.4	40.4	7.0	0.5	0.2
80세 이상	100.0	78.1	100.0	36.9	5.0	9.5	6.0	7.5	0.6	30.3	3.5	0.2	0.4

통계자료 70쪽

IV. 아동생활실태

16.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곳

초등학생이 방과 후 낮 동안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집」이 절반 이상임

- 2007년 초등학교 학생이 방과 후 낮 동안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집」이 54.4%로 가장 많고, 「학원」 39.5%, 「방과 후 아동 교실 또는 공부방」 5.8% 순임
- 도시지역 학생이 낮 동안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집」인 경우 55.1%로 농어촌 지역(50.2%)보다 많았고, 「학원」은 도시지역 학생이 39.2%로 농어촌지역(41.6%)보다 적게 나타났음
- 고학년(4~6학년)이 저학년(1~3학년)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적은 반면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많게 나타남
- 초등학교 학생이 방과 후 낮 동안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집」인 경우 돌보는 사람은 「부모(61.0%)」, 「혼자 또는 아동끼리(21.6%)」, 「조부모(9.4%)」 순임

<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곳과 함께 지내는 사람 >

(단위 : %)

	계	집	소계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기타가족 및 친인척	가사도우미 및 이웃사람	혼자 또는 아동끼리	학원	방과후 아동교실 및 공부방	기타
2007	100.0	54.4	100.0	61.0	9.4	5.2	1.6	1.2	21.6	39.5	5.8	0.3
도 시(동 부)	100.0	55.1	100.0	61.7	9.2	5.5	1.8	1.3	20.6	39.2	5.5	0.2
농어촌(읍면부)	100.0	50.2	100.0	56.6	10.5	3.3	0.8	0.8	28.1	41.6	7.6	0.6
남 자	100.0	53.3	100.0	59.6	9.3	4.3	1.4	1.6	23.7	40.7	5.6	0.4
여 자	100.0	55.6	100.0	62.4	9.4	6.2	1.9	0.8	19.3	38.2	6.1	0.2
저학년(1~3학년)	100.0	59.9	100.0	67.3	10.0	6.3	1.9	1.1	13.5	33.6	6.3	0.3
고학년(4~6학년)	100.0	49.8	100.0	54.7	8.8	4.2	1.4	1.3	29.6	44.4	5.4	0.3
어머니와 함께거주	100.0	53.9	100.0	65.4	6.2	4.8	1.2	1.3	21.2	40.2	5.6	0.3
전일제	100.0	41.1	100.0	22.3	14.5	11.8	2.7	3.4	45.2	51.2	7.2	0.5
시간제	100.0	54.6	100.0	62.1	6.8	3.3	0.7	0.6	26.4	37.7	7.6	0.1
전업주부	100.0	66.4	100.0	93.4	0.8	0.7	0.2	0.1	4.8	30.0	3.4	0.1

통계자료 71쪽

17. 방과 후 시간의 활용

초등학생의 학습관련 활동 시간은 「2~3시간 미만」이 가장 많고,
학습외 활동(놀이)은 「1~2시간 미만」이 가장 많음

- 초등학교 학생이 평일 방과 후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공부·학원 등 학습 관련 활동 시간은 「2~3시간 미만」이 32.6%로 가장 많고, 「1~2시간 미만」 31.5%, 「1시간 미만」 15.5% 순임
- 도시지역 학생은 「2~3시간 미만(33.2%)」, 「1~2시간 미만(30.4%)」 순인 반면, 농어촌지역은 「1~2시간 미만(38.1%)」, 「2~3시간 미만(29.3%)」 순으로 나타남
- 학습외 활동(놀이) 시간은 「1~2시간 미만」이 39.2%로 가장 많고, 다음이 「2~3시간 미만」 29.4%, 「1시간 미만」 13.5% 순임
-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및 남녀별 모두 「1~2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음

< 방과 후 시간의 활용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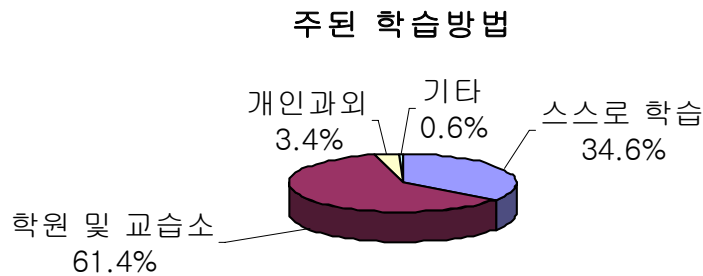
	계	학습관련활동						학습외 활동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2007	100.0	15.5	31.5	32.6	14.8	3.9	1.7	13.5	39.2	29.4	12.7	3.2	2.1
도 시(동 부)	100.0	15.3	30.4	33.2	15.2	4.1	1.9	13.4	38.8	29.6	12.7	3.3	2.1
농어촌(읍면부)	100.0	16.4	38.1	29.3	12.5	2.8	0.9	14.1	41.4	27.6	12.5	2.7	1.7
남 자	100.0	16.6	32.0	31.8	14.3	3.9	1.4	12.2	38.5	30.1	13.5	3.4	2.2
여 자	100.0	14.2	31.0	33.5	15.4	3.9	2.1	14.9	39.9	28.5	11.7	3.0	2.0
저학년(1~3학년)	100.0	16.5	33.0	31.4	14.2	3.8	1.2	11.3	37.7	31.4	13.4	3.4	2.6
고학년(4~6학년)	100.0	14.6	30.3	33.6	15.3	4.0	2.2	15.3	40.4	27.7	12.0	3.0	1.6
어머니와 함께거주	100.0	14.7	31.2	33.1	15.2	4.0	1.7	13.7	39.4	29.2	12.5	3.1	2.0
전일제	100.0	13.8	29.9	34.0	15.4	5.2	1.8	12.8	40.3	28.8	12.9	3.3	2.0
시간제	100.0	15.9	33.3	31.5	15.6	2.6	1.0	11.7	38.9	30.2	14.0	3.4	1.8
전업주부	100.0	15.1	32.1	32.8	14.9	3.3	1.8	15.2	38.9	29.1	11.8	2.8	2.2

통계자료 72쪽

18. 학습 방법

초등학생의 주된 학습 방법은 「학원 및 교습소」 이용이 61.4%로 가장 많음

- 초등학교 학생의 주된 학습방법은 「학원 및 교습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61.4%로 가장 많고, 「스스로 학습」 34.6%, 「개인과외를 이용」 3.4% 순임
 - 고학년(4~6학년) 학생은 「학원 및 교습소」를 66.2% 이용하여 저학년(1~3학년) 55.6%보다 높았고, 상대적으로 「스스로 학습」은 낮았음
- 어머니가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 「학원 및 교습소」를 이용한 학생은 70.9%로 시간제(57.3%), 전업주부(54.0%)보다 높았고, 「스스로 학습」은 24.9%로 시간제(38.9%), 전업주부(42.2%)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음



< 주된 학습 방법 >

(단위 : %)

	계	스스로 학습	학원 및 교습소를 이용	개인 과외를 이용	기타
2007	100.0	34.6	61.4	3.4	0.6
도 시(동 부)	100.0	34.3	61.7	3.4	0.6
농어촌(읍면부)	100.0	36.4	59.7	3.4	0.5
남 자	100.0	33.6	62.6	3.5	0.4
여 자	100.0	35.7	60.2	3.3	0.8
저학년(1~3학년)	100.0	40.5	55.6	3.1	0.7
고학년(4~6학년)	100.0	29.7	66.2	3.6	0.5
어머니와 함께거주	100.0	34.4	61.7	3.5	0.4
전일제	100.0	24.9	70.9	3.8	0.4
시간제	100.0	38.9	57.3	3.6	0.3
전업주부	100.0	42.2	54.0	3.2	0.5

통계자료 7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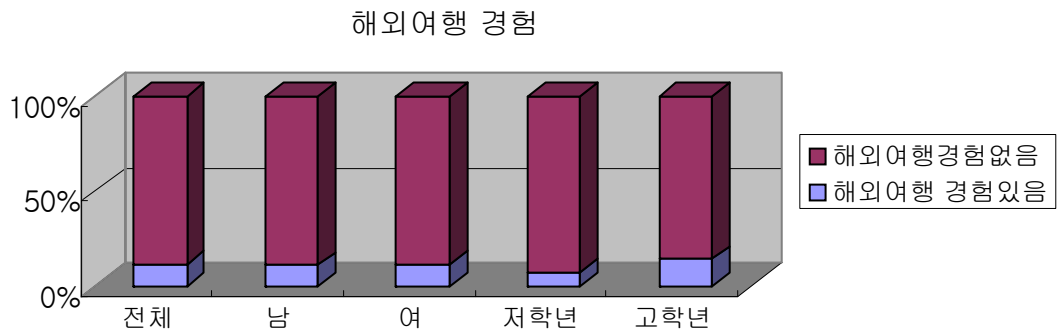
19. 해외여행 경험

초등학생의 「해외여행 경험」은 11.3%이며 주목적은 「관광 및 여행」임

○ 초등학교 학생이 입학 후부터 현재(2007. 6. 15)까지 「해외여행을 경험」한 비율은 11.3%로 나타났다

- 여학생이 11.7%로 남학생 11.0%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초등학교 학생의 「해외여행」을 목적별로 보면 「관광 및 여행」이 87.8%로 가장 많고, 「어학연수」 11.6%, 「부모의 근무지 이동」 5.7% 순임



< 해외여행 경험(복수응답) >

(단위 : %)

	계	해외여행 경험 있음	관광 및 여행		어학 연수		부모의 근무지 이동		기타		해외여행 경험 없음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2007	100.0	11.3	87.8	1.7	11.6	1.1	5.7	1.2	3.1	2.3	88.7
남 자	100.0	11.0	86.3	1.6	12.4	1.1	5.7	1.1	2.2	1.9	89.0
여 자	100.0	11.7	89.3	1.7	10.7	1.1	5.7	1.2	4.0	2.6	88.3
저학년(1~3학년)	100.0	7.7	91.6	1.6	6.1	1.1	5.2	1.2	1.8	4.2	92.3
고학년(4~6학년)	100.0	14.3	86.1	1.7	14.0	1.1	6.0	1.2	3.7	1.9	85.7

통계자료 74쪽

20. 놀이 방법 및 장소

20-1. 방과 후 학습 외 활동(놀이 방법)

초등학교 학생의 방과 후 놀이는 남자는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 여자는 「TV 및 비디오 시청」이 가장 많음

- 초등학교 학생이 방과 후 학습 외 활동(놀이)으로 「TV 및 비디오 시청」이 34.8%로 가장 많고,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 31.8%, 「독서」 12.8% 순임
-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TV 및 비디오시청(34.8%)」,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30.8%)」, 「독서(13.4%)」 순으로 나타난 반면, 농어촌지역은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37.9%)」, 「TV 및 비디오 시청(35.0%)」, 「스포츠 활동(10.7%)」 순으로 나타남
- 남자는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스포츠 활동」을, 여자는 「TV 및 비디오 시청」, 「독서」, 「악기연주」 등의 놀이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방과 후 놀이 방법 >

(단위 : %)

	계	TV 및 비디오시청	컴퓨터게임, 인터넷검색	독서	음악 감상	악기 연주	창작활동 (미술, 공예, 사진 등)	스포츠 활동	가사	기타
2007	100.0	34.8	31.8	12.8	0.4	2.8	1.8	12.5	0.8	2.4
도 시(동 부)	100.0	34.8	30.8	13.4	0.4	3.0	1.8	12.8	0.7	2.3
농어촌(읍면부)	100.0	35.0	37.9	8.9	0.5	1.5	1.8	10.7	1.0	2.7
남 자	100.0	29.9	37.4	9.2	0.1	1.4	0.9	18.9	0.5	1.7
여 자	100.0	40.3	25.7	16.7	0.7	4.3	2.8	5.3	1.1	3.1
저학년(1~3학년)	100.0	37.1	23.2	14.9	0.1	3.7	2.7	13.8	0.9	3.6
고학년(4~6학년)	100.0	32.9	39.0	11.0	0.6	2.1	1.0	11.3	0.7	1.3
어머니와 함께거주	100.0	34.4	31.7	13.1	0.3	2.9	1.8	12.7	0.7	2.3
전일제	100.0	36.4	35.4	9.5	0.4	2.4	1.8	11.1	0.8	2.2
시간제	100.0	36.9	30.2	11.7	0.1	2.6	1.5	14.9	0.5	1.6
전업주부	100.0	31.9	28.3	17.3	0.4	3.6	2.0	13.5	0.6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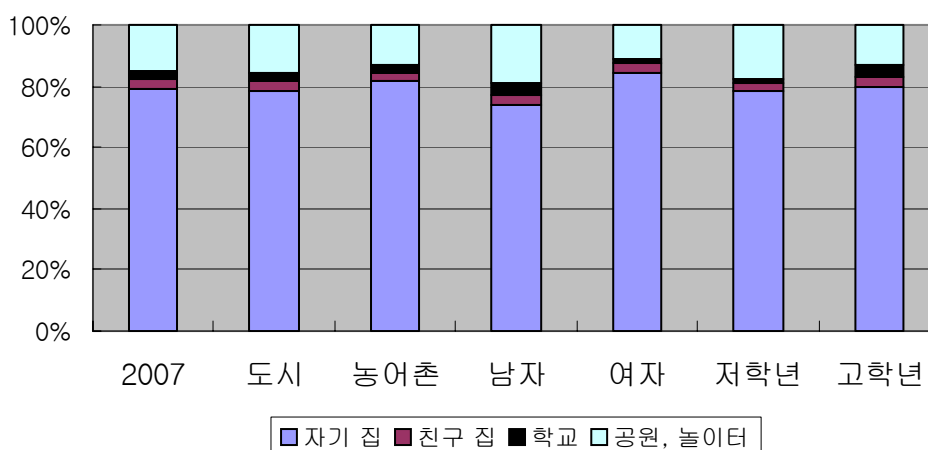
통계자료 □ 75쪽

20-2. 방과 후 놀이 장소

초등학생의 방과 후 놀이장소는 「자기 집」이 78.0%로 가장 많음

- 2007년 초등학교 학생이 방과 후 학습 외 활동(놀이)을 하는 장소는 「자기 집」이 78.0%로 가장 많고, 「공원 및 놀이터」 15.1%, 「친구 집」 3.0% 순임
- 「자기 집」에서 학습 외 활동(놀이)은 농어촌지역 학생이 80.7%로 도시지역 77.6% 보다 많았으며, 성별로는 여자(83.7%)가 남자(72.9%)보다 많았음
- 「공원 및 놀이터」는 도시지역 학생이 15.5%로 농어촌지역 12.8%보다 많았으며, 성별로는 남자(18.7%)가 여자(11.1%)보다 많았음

방과후 놀이장소



< 방과 후 학습외 활동(놀이) 장소 >

(단위 : %)

	계	자기 집	친구 집	학교	공원, 놀이터	PC방, 오락실	기타
2007	100.0	78.0	3.0	2.6	15.1	0.2	1.1
도시(동부)	100.0	77.6	3.0	2.7	15.5	0.2	1.0
농어촌(읍면부)	100.0	80.7	2.7	2.4	12.8	0.1	1.3
남자	100.0	72.9	2.6	4.1	18.7	0.4	1.3
여자	100.0	83.7	3.4	1.0	11.1	0.0	0.8
저학년(1~3학년)	100.0	77.1	2.5	1.4	17.6	0.1	1.4
고학년(4~6학년)	100.0	78.8	3.4	3.6	13.0	0.3	0.8

통계자료 7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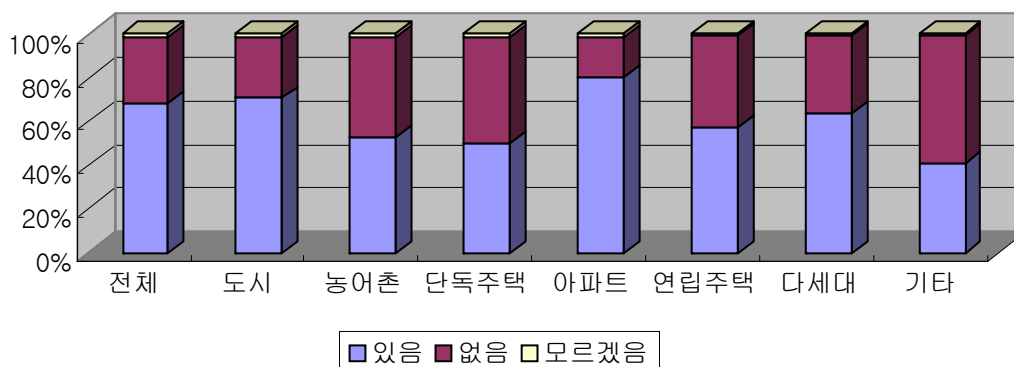
21. 안전한 놀이 장소

「안전한 놀이장소」는 도시지역(70.6%)이 농촌지역(53.1%)보다 높게 나타났음

○ 집근처에 아동이 자동차 등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놀이터, 운동장 등)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주는 68.0%, 「없다」고 응답한 가구주는 30.6%로 나타났음

- 안전한 놀이장소가 「있다」고 응답한 도시가구주는 70.6%로 농어촌지역 53.1%보다 많고, 주택형태별로는 「아파트」에 사는 가구주가 80.6%로 가장 많고, 「다세대주택(64.1%)」, 「연립주택(57.7%)」, 「단독주택(50.1%)」 순임

안전한 놀이장소



< 안전한 놀이 장소 >

(단위 : %)

	계 ¹⁾	있음	없음	모르겠음
2007	100.0	68.0	30.6	1.4
도 시(동 부)	100.0	70.6	28.0	1.4
농어촌(읍면부)	100.0	53.1	45.7	1.2
주 택 형 태				
단독주택	100.0	50.1	48.5	1.4
아파트	100.0	80.6	17.9	1.5
연립주택	100.0	57.7	41.4	0.9
다세대주택	100.0	64.1	35.3	0.6
기타	100.0	40.7	58.5	0.8

주 : 1) 초등학교생이 있는 가구

통계자료 7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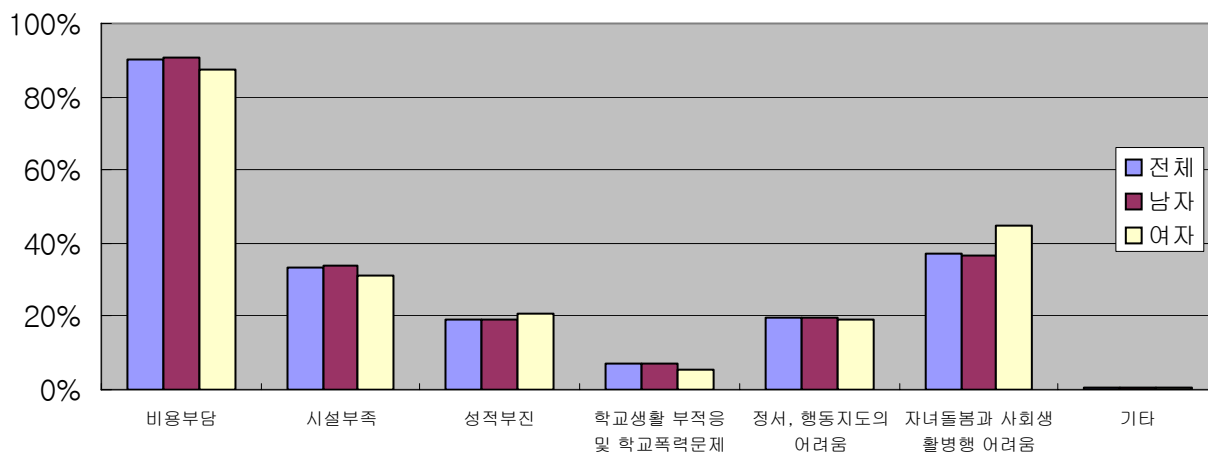
22. 아동 양육의 어려운 점

초등학생 양육의 어려운 점은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 부담」이 90.3%로 가장 많음

○ 초등학교 학생을 양육하는 데는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의 부담」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한 가구주가 90.3%이며, 「방과 후 지도 등 자녀 돌봄과 사회생활 병행의 어려움」 37.4%, 「주거공간 협소 및 편의시설 부족」 33.4% 순임

- 남자 가구주는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 부담」, 「주거 공간 협소 및 편의시설 부족」, 여자 가구주는 「방과 후 지도 등 자녀 돌봄과 사회생활 병행의 어려움」, 「성적부진 또는 학습부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아동양육의 어려운 점



< 아동양육의 어려운 점(복수 응답) >

(단위 : %)

	계 ¹⁾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의 부담	주거공간 협소 및 편의시설 의 부족	성적 또는 학습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교폭력문제	정서, 행동지도의 어려움	방과 후 지도 등 자녀돌봄과 사회생활 병행의 어려움	기타
2007	100.0	90.3	33.4	19.0	6.9	19.6	37.4	0.8
도 시(동 부)	100.0	90.9	33.5	18.9	6.8	19.7	37.4	0.7
농어촌(읍면부)	100.0	86.4	33.1	19.7	7.0	18.9	37.4	1.5
남 자	100.0	90.6	33.7	18.9	7.0	19.6	36.6	0.8
여 자	100.0	87.4	31.1	20.5	5.3	19.1	44.9	0.7

주 : 1)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

통계자료 78쪽

【 문화와 여가 】

1. 신문 구독

2007년 신문 보는 사람 비율은 68.2%로 2004년보다 4.4%p 높아짐

- 15세 이상 인구의 신문구독률은 68.2%로 나타났으며, 신문구독자 중 일반신문과 인터넷 신문구독률은 각각 73.0%, 59.8%로 나타남
 - 도시지역(71.8%)이 농어촌지역(51.4%)보다, 남자(77.0%)가 여자(59.8%)보다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의 구독비율이 각각 93.2%, 91.6%로 높았음
- 신문구독빈도는 일반신문, 인터넷신문 모두 거의 매일 보는 경우가 각각 48.4%, 45.5%로 가장 많았음

< 신문 구독 >

(단위 : %)

	계	신문 보는 사람	일반 신문	소계	거의 매일	1주일에 3~4회	1주에 1~2회	2주에 1회	인터넷 신문	소계	거의 매일	1주에 3~4회	1주에 1~2회	2주에 1회
2004 ¹⁾	100.0	63.8	82.8	100.0	60.1	20.6	15.1	4.2	40.4	100.0	48.9	28.4	17.8	5.0
2007 ²⁾	100.0	68.2	73.0	100.0	48.4	22.3	22.5	6.8	59.8	100.0	45.5	27.8	21.1	5.6
도 시(동 부)	100.0	71.8	73.0	100.0	49.3	22.2	21.9	6.6	60.7	100.0	45.7	28.1	20.8	5.4
농어촌(읍면부)	100.0	51.4	73.0	100.0	42.1	22.8	26.5	8.6	53.8	100.0	44.0	25.7	23.5	6.8
남 자	100.0	77.0	76.2	100.0	54.4	21.5	18.9	5.2	59.1	100.0	51.2	26.1	18.2	4.5
여 자	100.0	59.8	69.2	100.0	40.1	23.4	27.5	9.1	60.7	100.0	38.7	29.8	24.6	6.9
전문관리직	100.0	93.2	74.3	100.0	61.1	18.6	16.4	4.0	74.7	100.0	57.2	24.4	15.0	3.4
사무직	100.0	91.6	69.2	100.0	53.0	21.7	20.4	4.9	76.7	100.0	56.6	24.8	15.7	2.9
서비스판매직	100.0	67.9	80.9	100.0	48.3	24.0	21.0	6.7	46.4	100.0	40.8	28.7	22.5	8.0
농어업	100.0	32.1	91.8	100.0	36.2	24.4	30.8	8.6	19.2	100.0	30.3	26.4	31.6	11.8
기능노무직	100.0	63.6	80.7	100.0	44.4	25.0	24.4	6.1	41.8	100.0	35.4	29.5	27.1	8.0

주 : 1) 평소 신문 보는 사람

2) 지난 1개월동안 2주일에 1회이상 신문 보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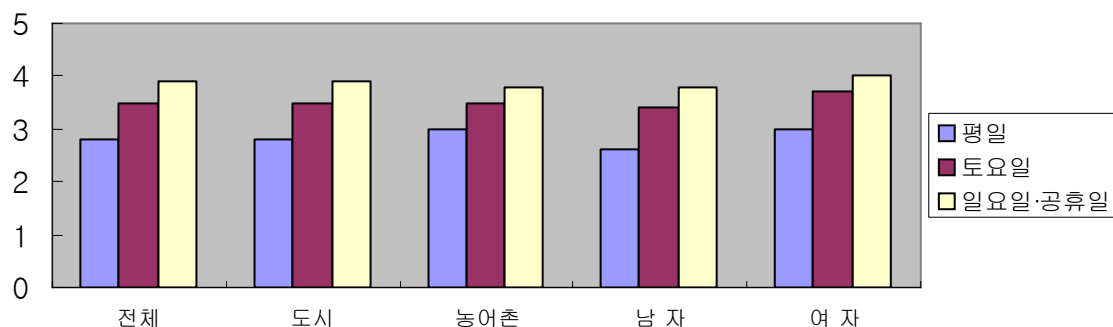
통계자료 ☞ 79쪽

2. TV 시청 시간

1주 동안 평균 TV 시청시간은 21.5시간임

- 15세 이상 인구 중 TV를 시청하는 비율은 95.9%로 나타났으며, 요일별로 보면 일요일 및 공휴일에 가장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주간 평균 TV 시청시간은 21.5시간으로 나타남
 -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시청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TV 평균 시청시간은 일요일 및 공휴일 3.9시간, 토요일 3.5시간, 평일 2.8시간 순임

TV시청시간



< TV 시청 시간 >

(단위 : %, 시간)

	계	TV 시청률	1주간 TV ³⁾ 시청시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2004 ¹⁾	100.0	96.4	93.2	91.9	92.7	2.9	3.6	4.2
2007 ²⁾	100.0	95.9	90.9	90.4	91.7	2.8	3.5	3.9
도시(동부)	100.0	95.8	90.4	90.0	91.4	2.8	3.5	3.9
농어촌(읍면부)	100.0	96.5	93.5	92.4	93.3	3.0	3.5	3.8
남자	100.0	95.8	90.3	90.1	91.7	2.6	3.4	3.8
여자	100.0	96.0	91.5	90.7	91.8	3.0	3.7	4.0

주 : 1) 평소 TV 보는 사람

2) 지난 1개월동안 TV 보는 사람

3) (평일 평균시청시간×5)+(토요일 평균 시청시간)+(일요일·공휴일 평균시청시간)

통계자료 80쪽

3. 독서 인구

지난 1년 동안 독서인구 비율은 58.9%, 평균독서권수는 10.5권으로
교양서적을 가장 많이 읽고 있음

- 지난 1년(2006. 6. 15.~2007. 6. 14.) 동안 15세 이상 인구 중 독서인구 비율은 58.9%로 2004년(62.2%)보다 3.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부터 연령이 높아질수록 독서비율은 낮아짐
- 서적종류별 독서비율은 「교양서적(65.2%)」, 「잡지류(49.5%)」, 「직업서적(33.9%)」, 「생활·취미·정보서적(24.6%)」 순으로 나타남
- 15세 이상 인구의 1년 동안 평균독서권수는 10.5권으로 2004년(13.9권)보다 3.4권 적게 읽었음
 -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많이 읽었음

< 독서 인구(복수응답) >

(단위 : %, 권)

	계		독서함		잡지류		교양 서적		직업 서적		생활· 취미· 정보 서적		기타	
	계	권수	비율	권수	비율	권수	비율	권수	비율	권수	비율	권수	비율	권수
2004	100.0	13.9	62.2	22.4	54.9	7.8	69.7	9.1	32.5	7.2	24.0	4.3	21.3	39.6
2007	100.0	10.5	58.9	17.8	49.5	6.8	65.2	8.5	33.9	6.9	24.6	4.4	19.5	27.7
남 자	100.0	11.5	58.5	19.7	44.5	7.5	59.1	8.3	42.8	7.2	22.4	4.3	24.6	30.1
여 자	100.0	9.4	59.3	15.9	54.2	6.3	71.0	8.6	25.5	6.5	26.7	4.5	14.7	23.9
15~19세	100.0	19.5	78.1	25.0	36.5	5.8	73.5	10.2	13.4	6.3	14.4	5.0	46.7	29.7
20~29세	100.0	17.2	78.7	21.9	50.7	6.8	67.0	9.0	43.5	6.8	25.7	4.1	29.2	28.8
30~39세	100.0	13.9	74.8	18.6	51.0	7.0	63.3	8.6	41.7	7.0	32.1	4.7	17.8	29.1
40~49세	100.0	8.8	61.0	14.4	53.6	7.0	62.9	8.2	33.7	7.1	23.3	4.5	9.1	21.7
50~59세	100.0	4.9	43.5	11.3	51.5	6.8	61.3	6.9	27.1	6.9	21.0	4.0	6.3	14.1
60세 이상	100.0	2.0	21.4	9.6	43.0	6.6	68.1	6.9	12.5	7.6	16.5	3.7	4.0	13.1

통계자료 81쪽

4. 레저시설 이용자

지난 1년 동안 레저시설 이용자는 64.7%며, 관광명소를 가장 많이 이용함

- 지난 1년(2006. 6. 15.~2007. 6. 14.) 동안 관광명소, 온천장 등의 레저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64.7%로 2004년(62.3%)보다 2.4%p 증가함
 - 레저시설별로 보면 「관광명소」를 70.4%로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놀이공원(37.1%)」, 「해수욕장(33.6%)」, 「온천장(32.0%)」 순임
 -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광명소」, 「온천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냄
- 1년 동안 레저시설별 평균이용횟수는 「골프장(8.6회)」, 「온천장(3.9회)」, 「관광명소(3.1회)」 순으로 나타남
 - 골프장 평균이용횟수의 경우 타 레저시설에 비해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음

< 레저시설 이용자(복수응답) >

(단위 : %, 회)

	계	이용 합	관광 명소	회수	온천 장	회수	골프 장	회수	스키 장	회수	해수 욕장	회수	산림 욕장	회수	놀이 공원	회수	기타	회수
2004	100.0	62.3	63.5	2.9	33.5	3.5	3.3	8.5	11.7	2.4	39.3	1.8	26.1	2.1	45.6	2.3	1.2	4.3
2007	100.0	64.7	70.4	3.1	32.0	3.9	3.6	8.6	10.4	2.3	33.6	1.8	27.7	2.5	37.1	2.3	1.0	12.9
도 시(동 부)	100.0	65.2	69.5	3.2	32.0	3.7	4.1	8.6	11.3	2.3	34.7	1.8	28.9	2.5	39.3	2.4	1.0	12.7
농어촌(읍면부)	100.0	62.4	75.1	2.8	32.3	4.7	1.6	7.7	6.1	2.6	28.5	1.9	22.0	2.6	26.2	2.0	0.8	13.5
남 자	100.0	64.0	70.2	3.2	29.8	3.8	5.8	9.4	11.6	2.5	35.2	1.8	28.1	2.7	36.5	2.4	1.4	14.6
여 자	100.0	65.4	70.7	3.0	34.1	3.9	1.7	5.9	9.3	2.1	32.1	1.8	27.4	2.4	37.6	2.3	0.6	9.0
15~19세	100.0	65.9	61.8	2.1	14.5	3.8	0.7	7.7	8.3	1.6	34.7	1.9	15.3	1.8	53.8	1.8	0.4	1.4
20~29세	100.0	71.9	64.3	2.9	24.7	3.4	1.5	3.8	21.6	2.5	48.1	1.9	27.6	1.9	48.7	2.0	0.7	3.9
30~39세	100.0	76.0	68.5	3.3	33.4	3.6	3.4	5.5	13.9	2.4	43.2	1.8	33.3	2.2	57.4	2.6	1.2	12.6
40~49세	100.0	63.5	72.3	3.3	34.8	3.9	7.4	9.4	8.0	1.9	31.9	1.7	31.7	2.7	29.2	2.4	1.2	16.1
50~59세	100.0	58.4	78.1	3.5	38.5	4.3	5.5	11.3	2.6	2.3	18.4	1.6	29.5	3.3	11.9	2.5	1.1	14.6
60세 이상	100.0	50.1	77.6	2.8	39.9	4.2	1.4	12.8	0.7	1.2	12.4	1.5	17.2	4.0	9.8	3.0	0.7	19.5

통계자료 82쪽

5.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비율은 54.3%이며, 영화관람 횟수(5.8회)가 가장 높음

- 지난 1년 (2006. 6. 15.~2007. 6. 14.) 동안 공연 및 스포츠 관람을 한 사람은 54.3%로 2004년(51.0%) 보다 3.3%p 증가하였음
 - 음악·연주회,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공연장」을 찾은 경우가 86.8%로 가장 많았으며, 「전시장 관람」 36.6%, 「스포츠관람」 18.4% 순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여자보다 「영화」, 「스포츠」 관람을 많이 한 반면, 여자는 남자보다 「음악·연주회」, 「연극·뮤지컬」, 「전시장」의 관람을 많이 함
- 1년 동안 평균관람횟수는 7.0회로 2004년(7.1회)보다 0.1회 감소하였음
 - 분야별 평균관람횟수는 「영화(5.8회)」, 「스포츠관람(3.4회)」, 「음악·연주회(2.2회)」 순임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복수응답) >

(단위 : %, 회)

	계	관람함		공연장이용								전시장 이용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관람	
				음악·연주회		연극·뮤지컬		영화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2004	100.0	51.0	7.1	87.4	6.4	22.8	2.3	20.8	2.0	90.1	6.0	32.1	2.9	19.5	3.1
2007	100.0	54.3	7.0	86.8	6.1	26.6	2.2	26.0	2.0	85.0	5.8	36.6	2.8	18.4	3.4
남 자	100.0	53.6	6.5	83.2	5.6	23.8	2.1	21.9	1.9	85.8	5.4	33.9	2.7	26.6	3.6
여 자	100.0	55.0	7.4	90.2	6.6	29.0	2.3	29.6	2.1	84.4	6.2	39.1	2.8	10.8	3.0
15~19세	100.0	76.6	7.2	93.3	6.5	27.5	2.1	18.3	2.0	91.1	6.0	32.5	2.4	13.6	3.1
20~29세	100.0	77.5	10.2	94.7	9.2	19.4	2.4	26.4	2.3	94.5	8.5	25.5	3.0	20.9	3.5
30~39세	100.0	67.7	6.8	86.6	5.6	23.4	2.2	28.8	2.1	87.5	5.1	43.4	2.9	19.9	3.1
40~49세	100.0	52.1	5.5	84.1	4.5	31.1	2.2	22.4	1.9	83.6	4.1	39.4	2.7	18.3	3.5
50~59세	100.0	37.5	4.7	79.2	3.7	37.2	2.1	28.7	1.7	70.1	3.3	38.1	3.0	17.3	3.7
60세 이상	100.0	21.9	3.5	67.8	2.7	41.8	1.9	36.7	1.6	43.2	3.0	45.6	2.5	13.9	3.8

통계자료 84쪽

6.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

주말이나 휴일의 주된 여가활동방법은 주로 「TV 및 비디오시청」과 「휴식」임

-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방법으로는 「TV 및 비디오시청」이 52.9%로 가장 많고, 「휴식」 45.1%, 「가사일」 30.2% 순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TV 및 비디오시청(54.6%)」 「휴식(48.5%)」, 「사교 관련일(25.5%)」 순인 반면, 여자는 「TV 및 비디오시청(51.3%)」 「가사일(45.2%)」, 「휴식(41.9%)」 순으로 나타남
- 주말이나 휴일에 여가를 함께 보내는 사람으로 「가족」이 57.3%로 가장 많고, 「친구」 20.7%, 「혼자서」 15.8% 순임
- 연령대별로 보면 10대, 20대는 「친구」, 「가족」, 30대는 「가족」, 「친구」, 40대 부터는 「가족」, 「혼자서」 순으로 보냄

<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복수응답) >

(단위 : %)

	TV 및 비디오 시청	여행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컴퓨터 게임	종교 활동	가사일	휴식	사교 관련일
2004	56.7	12.4	8.2	2.5	9.0	18.9	-	32.9	50.7	30.0
2007	52.9	10.8	6.5	2.0	9.0	16.1	15.0	30.2	45.1	25.6
남 자	54.6	12.7	5.0	3.3	14.2	21.6	11.3	14.5	48.5	25.5
여 자	51.3	8.9	8.0	0.8	3.9	10.8	18.5	45.2	41.9	25.7
15~19세	52.8	2.5	9.5	1.5	9.4	50.6	9.6	3.7	36.6	28.0
20~29세	48.7	10.2	17.0	2.9	8.4	32.0	10.2	14.6	42.2	37.7
30~39세	52.3	16.6	7.9	2.4	9.4	16.4	13.1	39.1	45.7	26.4
40~49세	52.5	12.9	3.6	2.3	12.6	8.7	16.4	38.1	49.0	20.6
50~59세	52.8	11.5	1.7	1.8	9.5	5.4	19.4	36.2	47.1	22.1
60세 이상	58.3	4.7	0.6	0.7	4.0	1.8	19.2	32.2	44.9	20.6

통계자료 ㉠ 86쪽

< 여가활동 함께 하는 사람 >

(단위 : %)

	계	가족	친구 (연인)	동호회 (종교단체등)	혼자서	기 타
2007	100.0	57.3	20.7	6.2	15.8	0.1
15~19세	100.0	33.6	42.7	3.4	20.2	0.1
20~29세	100.0	29.3	52.5	4.5	13.5	0.1
30~39세	100.0	75.1	11.9	4.2	8.8	0.1
40~49세	100.0	71.6	8.6	7.2	12.5	0.1
50~59세	100.0	61.2	10.9	8.9	18.8	0.1
60세 이상	100.0	53.4	12.5	7.9	26.1	0.1

통계자료 ㉠ 88쪽

7.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여가시간에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 10명 중 6명 정도가
여행으로 지역, 성별, 연령대를 초월하여 선호하고 있음

- 앞으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여가시간에 하고 싶은 것으로 「여행」이 58.8%로 가장 많고, 「자기개발」 26.8%, 「문화예술 관람」 21.2%, 「스포츠 활동」 20.9% 순임
- 지역별로는 「여행」을 제외하면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은 「자기개발(28.4%)」 「문화예술관람(22.5%)」, 「스포츠활동(21.8%)」 순인 반면, 농어촌지역은 「사교 관련 일(22.2%)」 「휴식(21.7%)」, 「자기개발(19.1%)」 순임
- 성별로는 「여행」을 제외하면 남자는 「스포츠활동(29.3%)」 「자기개발(26.8%)」, 「사교 관련일(18.7%)」 순인 반면, 여자는 「자기개발(26.8%)」 「문화예술관람(26.3%)」, 「창작적 취미(22.1%)」 순임
-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문화예술관람」, 「스포츠관람」, 을 선호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종교활동」, 「휴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복수응답) >

(단위 : %)

	TV시청	여행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창작적 취미	자기 개발	봉사 활동	종교 활동	휴식	사교 관련일
2007	10.0	58.8	21.2	6.4	20.9	16.6	26.8	9.7	10.2	17.4	19.0
도 시(동 부)	9.5	59.9	22.5	6.6	21.8	17.3	28.4	9.9	10.3	16.4	18.3
농어촌(읍면부)	12.7	53.6	15.3	5.4	16.4	13.1	19.1	8.9	9.6	21.7	22.2
남 자	10.6	61.7	16.0	10.6	29.3	10.8	26.8	7.7	7.3	17.1	18.7
여 자	9.5	56.0	26.3	2.4	12.9	22.1	26.8	11.6	13.0	17.6	19.3
15~19세	11.1	43.1	31.8	8.8	22.9	19.6	37.9	5.4	4.3	13.9	19.3
20~29세	6.0	61.5	29.4	7.5	23.9	21.3	46.9	5.6	4.8	12.9	16.0
30~39세	5.6	65.4	28.6	7.3	28.2	22.5	37.4	8.7	6.5	14.4	13.7
40~49세	7.9	64.5	21.6	6.7	25.6	17.3	22.9	14.6	11.2	15.9	16.0
50~59세	11.8	61.2	12.9	5.9	17.0	13.1	13.6	15.4	15.6	19.1	22.1
60세 이상	20.1	46.4	5.9	3.1	5.6	5.3	4.6	6.3	17.1	27.3	29.2

통계자료 □ 89쪽

8. 여가활용 만족 여부

여가활용에 대해 「불만족」한 사람은 78.4%,
주된 불만이유는 「경제적 부담」과 「시간부족」임

- 여가활용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사람은 21.6%, 「불만족」한 사람은 78.4%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남
 - 「만족」비율이 2004년(27.3%)보다 5.7%p 감소함
 - 「불만족」은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이 농어촌지역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경제적 부담(58.5%)」과 「시간부족(24.6%)」인 것으로 나타남
 - 남녀 모두, 「경제적 부담」과 「시간부족」을 불만 이유로, 60세 이상 연령대는 「경제적 부담」 다음으로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음」을 불만 이유로 꼽았음

< 여가활용 만족 여부 및 불만족 이유 >

(단위 : %)

	계	만족	불만족	소계	경제적 부담	시간부족	교통혼잡 및 불편	여가시설 부족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적당한 취미 없음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음	여가함께 할 사람없음	기타
2004	100.0	27.3	72.7	100.0	52.4	25.0	3.8	3.7	2.0	4.7	6.1	2.1	0.2
2007	100.0	21.6	78.4	100.0	58.5	24.6	2.7	1.9	1.4	2.9	6.5	1.4	0.2
도 시(동 부)	100.0	21.0	79.0	100.0	59.2	24.7	2.7	1.7	1.4	3.0	5.6	1.4	0.2
농어촌(읍면부)	100.0	24.3	75.7	100.0	54.8	23.8	2.4	3.1	1.2	2.7	10.5	1.4	0.1
남 자	100.0	22.5	77.5	100.0	58.6	26.1	2.9	1.8	1.2	3.0	4.8	1.5	0.1
여 자	100.0	20.7	79.3	100.0	58.3	23.1	2.4	2.1	1.5	2.9	8.0	1.3	0.3
15~19세	100.0	23.0	77.0	100.0	35.7	50.9	1.2	4.4	1.8	3.8	0.6	1.2	0.3
20~29세	100.0	22.2	77.8	100.0	55.9	29.4	2.8	3.3	2.1	3.5	1.1	1.7	0.1
30~39세	100.0	18.2	81.8	100.0	58.4	28.5	3.9	2.1	1.8	2.1	1.4	1.4	0.4
40~49세	100.0	17.4	82.6	100.0	66.6	22.7	2.7	1.1	1.2	2.1	2.6	1.1	0.1
50~59세	100.0	21.8	78.2	100.0	65.8	19.6	2.5	1.0	0.8	3.2	6.0	1.1	0.1
60세 이상	100.0	29.4	70.6	100.0	54.3	7.8	1.6	1.1	0.8	4.0	28.4	1.8	0.1

통계자료 90쪽

9. 국내 관광여행 횟수

관광을 목적으로 55.8%가 국내여행을 하였으며, 관광객 1인당 여행횟수는 4.4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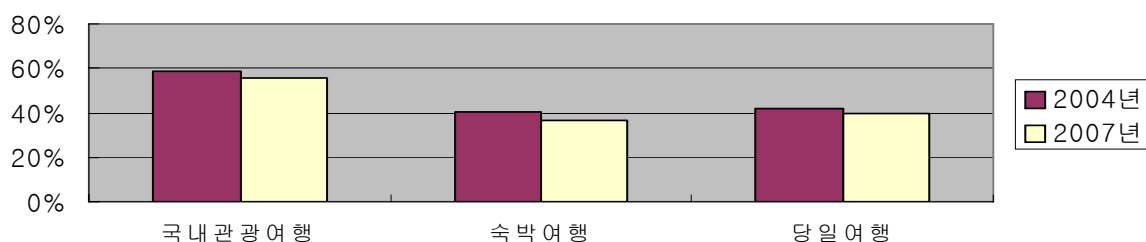
○ 지난 1년(2006. 6. 15.~2007. 6. 14.) 동안 관광을 목적으로 55.8%가 국내여행을 다녀왔으며, 관광객 1인당 여행횟수는 4.4회임

- 국내여행 비율과 1인당 여행횟수는 2004년에 비해 각각 2.6%p, 0.6회 감소함
- 여자가 남자보다 국내여행을 많이 한 반면, 1인당 여행횟수는 남자보다 적게 나타남

○ 15세 이상인구 중 36.7%는 숙박을, 39.6%는 당일 여행을 함

-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모두 당일여행이 숙박여행보다 많음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는 타 연령대보다 숙박여행의 비율이, 30대, 50대는 당일여행의 비율이 높음

국 내 관 광 여 행



< 국내 관광여행 횟수(복수응답) >

(단위 : %, 회)

	계	국내관광 여행	관광자 1인당 횟수	숙박여행	관광자 1인당 횟수	당일여행	관광자 1인당 횟수
2004	100.0	58.4	5.0	40.4	2.5	41.7	4.6
2007	100.0	55.8	4.4	36.7	2.3	39.6	4.1
도 시(동 부)	100.0	55.7	4.6	38.3	2.4	38.6	4.2
농어촌(읍면부)	100.0	56.4	3.9	29.1	2.2	44.1	3.6
남 자	100.0	54.7	4.6	36.4	2.4	38.6	4.3
여 자	100.0	56.9	4.3	37.0	2.3	40.5	3.9
15~19세	100.0	50.6	2.8	37.2	1.8	27.4	2.7
20~29세	100.0	61.0	4.5	44.0	2.6	40.7	3.9
30~39세	100.0	64.2	5.1	46.7	2.5	45.3	4.7
40~49세	100.0	54.3	4.6	35.8	2.3	39.0	4.4
50~59세	100.0	53.4	4.6	30.8	2.3	41.0	4.3
60세 이상	100.0	46.8	3.7	23.0	2.1	36.5	3.4

통계자료 91쪽

10. 여행지에서 불편한 점

국내 관광객 10명 중 8명 정도가 여행지에서 불편하다고 느꼈으며,
그 중 「바가지요금」이 45.3%로 가장 많았음

- 국내 관광객 중 79.5%가 불편함을 느꼈다고 응답했으며 2004년(78.8%)에 비해 0.7%p 증가함
 -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이 농어촌지역보다,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불편한 점을 많이 느꼈음
- 여행지에서 불편한 점으로는 「바가지요금」이 45.3%로 가장 많고, 「입장료, 주차료」 35.3%, 「교통불편」 31.7%, 「관광안내 및 정보부족」 30.1% 순임
 - 2004년에 비해 「입장료, 주차료」, 「관광안내 및 정보부족」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화장실」, 「오락 및 레저시설 부족」이 불편하다고 한 사람이 많았음

< 여행지에서 불편한 점(복수응답) >

(단위 : %)

	계	불편한 점 있음	교통 불편	화장실	음식, 식수	바가지 요금	입장료, 주차료	관광안내 및 정보부족	무질서	숙박, 휴게 시설, 주차 시설부족	오락 및 레저시설 부족	지역주민 불친절	기타
2004	100.0	78.8	41.1	28.4	19.7	51.3	35.2	27.6	29.9	21.9	12.7	2.9	0.3
2007	100.0	79.5	31.7	19.9	12.2	45.3	35.3	30.1	22.5	20.5	12.3	2.5	0.1
도 시(동 부)	100.0	82.5	32.6	19.9	12.1	45.4	34.8	30.8	22.3	20.7	12.6	2.3	0.1
농어촌(읍면부)	100.0	66.1	26.5	20.0	13.1	44.4	38.4	26.1	23.2	19.4	10.8	3.2	0.3
남 자	100.0	80.6	32.3	16.0	11.1	46.1	36.2	30.9	23.6	21.8	13.1	2.6	0.1
여 자	100.0	78.5	31.2	23.5	13.2	44.5	34.6	29.5	21.4	19.3	11.6	2.4	0.1
15~19세	100.0	75.3	27.1	32.0	22.8	38.6	17.5	22.3	27.6	16.5	24.4	2.0	0.1
20~29세	100.0	85.0	36.0	22.3	10.0	51.0	30.1	31.9	20.6	21.7	15.9	2.1	0.1
30~39세	100.0	87.0	32.1	19.4	11.3	47.9	38.0	34.4	17.4	24.4	14.3	2.0	0.1
40~49세	100.0	84.4	31.7	18.8	12.4	43.0	40.3	31.0	22.7	21.1	9.4	2.5	0.1
50~59세	100.0	78.9	28.1	16.1	11.1	42.0	42.3	27.5	28.5	17.8	6.8	3.2	0.2
60세 이상	100.0	55.9	30.5	15.8	13.1	40.7	30.7	22.6	26.9	13.0	5.5	3.7	0.1

통계자료 92쪽

11. 해외여행 경험 및 횟수

지난 1년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100명 중 14명이며,
여행목적은 「관광」이 74.8%로 가장 많음

- 지난 1년(2006. 6. 15.~2007. 6. 14.)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13.9%며, 2004년(10.2%)에 비해 3.7%p 증가함
 -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이 농어촌지역보다, 남자가 여자보다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많고, 20대, 30대, 40대 순으로 나타남
- 여행목적별로는 「관광」이 74.8%로 가장 많고, 「업무」 21.1%, 「가사」 9.9% 순임
 - 남자는 여자보다 「업무」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관광」, 「가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다녀옴
- 해외여행자 1인당 여행횟수는 「업무(2.5회)」, 「가사(1.9회)」, 「어학연수 6개월 미만 (1.4회)」 순임

< 해외여행 경험 및 횟수 >

(단위 : %, 회)

	계	여행 경험있음 (지난1년간)	관광		가사		업무		어학 ¹⁾ 연수 (6개월 미만)		어학 ²⁾ 연수 (6개월 이상)		여행 경험없음	있음 (과거)	없음
			관광	여행자1 인당횟수	가사	여행자1 인당횟수	업무	여행자1 인당횟수	여행자1 인당횟수	여행자1 인당횟수	여행자1 인당횟수	여행자1 인당횟수			
2004	100.0	10.2	67.1	1.3	15.2	1.8	29.1 ³⁾	2.4	-	-	-	-	89.8	19.2	80.8
2007	100.0	13.9	74.8	1.3	9.9	1.9	21.1	2.5	1.9	1.4	1.6	1.2	86.1	22.3	77.7
도 시(동 부)	100.0	14.7	73.8	1.4	10.1	1.9	22.1	2.6	1.9	1.3	1.7	1.1	85.3	23.3	76.7
농 어 촌(읍면부)	100.0	10.1	81.2	1.3	8.8	1.8	14.5	2.4	2.0	1.5	0.8	1.6	89.9	17.8	82.2
남 자	100.0	14.6	66.3	1.4	8.4	2.0	33.0	2.6	2.1	1.4	1.5	1.2	85.4	22.6	77.4
여 자	100.0	13.2	83.6	1.3	11.6	1.9	8.6	2.3	1.7	1.3	1.7	1.1	86.8	22.0	78.0
15~19세	100.0	7.3	85.9	1.1	6.9	1.7	1.7	1.4	6.6	1.1	3.9	1.0	92.7	11.0	89.0
20~29세	100.0	15.3	76.0	1.2	6.0	1.8	15.1	2.0	5.4	1.2	5.5	1.1	84.7	18.5	81.5
30~39세	100.0	14.8	67.6	1.3	7.3	2.1	34.8	2.6	1.4	1.8	0.9	1.4	85.2	30.2	69.8
40~49세	100.0	14.2	65.8	1.4	12.8	1.9	31.1	2.6	0.5	2.2	0.4	1.3	85.8	21.2	78.8
50~59세	100.0	17.5	82.3	1.4	9.8	2.2	15.8	2.6	0.6	1.4	0.3	1.6	82.5	21.5	78.5
60세 이상	100.0	11.0	85.4	1.3	16.5	1.6	4.2	3.9	0.4	2.0	0.4	1.9	89.0	24.0	76.0

주 : 1), 2) 2007년 신규 항목, 3) 어학연수 6개월 미만 포함

통계자료 94쪽

12. 지역문화 예술행사

지역문화행사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12.5%이며,
불만이유로는 「내용이 다양하지 못해서」가 40.5%로 가장 많음

- 지난 1년(2006. 6. 15.~2007. 6. 14.) 동안 지역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은 23.1%로 2004년(20.0%)에 비해 3.1%p 증가함
 - 지역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한 사람 중 「만족」은 32.1%로 2004년(28.5%)에 비해 3.6%p 증가한 반면, 「불만」은 12.5%로 2004년(27.0%)에 비해 14.5%p 감소함
- 행사에 대한 불만이유는 「내용이 다양하지 못해서」가 40.5%로 가장 많고, 「행사나 공연 수준이 낮아서」 18.1%, 「입장료, 이용료 등이 비쌌」 8.5% 순임
 - 지역별로, 남녀별로 모두 「내용이 다양하지 못해서」, 「수준이 낮아서」 순임
- 지역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정보부족」이 28.5%로 가장 많고, 「시간부족」 23.1%, 「관심이 없음」 20.2% 순임

< 지역문화 예술행사 참여,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단위 : %)

	계	있음	만족	보통	불만	소계	내용이 다양하지 않음	수준이 낮아서	행사 횟수 부족	행사 시설 부족	주변 시설 부족	교통 불편	입장료, 이용료 등이 비쌌	관람 ¹⁾ 예절 부족	기타
2004	100.0	20.0	28.5	44.5	27.0	100.0	41.5	11.4	12.1	10.9	9.7	6.2	7.3	-	0.9
2007	100.0	23.1	32.1	55.4	12.5	100.0	40.5	18.1	7.2	5.8	8.4	6.8	8.5	4.4	0.3
도 시(동 부)	100.0	21.4	31.0	56.1	12.9	100.0	40.3	18.6	7.0	5.5	8.3	6.2	9.2	4.6	0.3
농어촌(읍면부)	100.0	30.7	35.7	53.1	11.2	100.0	41.4	16.4	7.9	7.2	8.4	9.3	5.7	3.4	0.2
남 자	100.0	21.8	31.3	55.8	13.0	100.0	41.1	19.8	6.7	5.1	8.1	6.5	8.8	3.5	0.3
여 자	100.0	24.3	32.8	55.1	12.1	100.0	39.9	16.6	7.7	6.5	8.6	7.2	8.1	5.1	0.2

주 : 1) 2007년 신규 항목

통계자료 ☞ 96, 98쪽

< 지역문화 예술행사 참여하지 않은 이유 >

(단위 : %)

	참여한 적 없음	소계	정보 부족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프로그램 불만족	교통 불편	체력 및 건강상	함께 참여할 사람 없음	관심이 없음	기타
2007	76.9	100.0	28.5	16.1	23.1	3.0	1.4	6.4	1.2	20.2	0.2
도 시(동 부)	78.6	100.0	30.0	16.1	22.8	3.0	1.1	5.3	1.1	20.4	0.2
농어촌(읍면부)	69.3	100.0	20.6	16.5	24.7	3.1	2.7	12.1	1.4	18.7	0.2
남 자	78.2	100.0	27.6	16.0	25.0	3.1	1.2	4.3	1.2	21.5	0.2
여 자	75.7	100.0	29.3	16.2	21.3	2.8	1.6	8.5	1.2	18.8	0.2

통계자료 ☞ 97쪽

13.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우리나라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전통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주된 관심 분야는 「전통식품」, 「전통무용·음악」, 「민속놀이」 순임

-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55.0%로 2004년(47.0%)에 비해 8.0%p 증가함
 - 연령대로 보면 10대와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 절반 이상이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분야는 「전통식품」이 24.7%로 가장 많고, 「전통무용·음악」 16.4%, 「민속놀이」 14.4%, 「전통예절 및 의식」 13.6% 순임
 - 남자는 「민속놀이」에, 여자는 「전통식품」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임
 - 연령대별로 보면 10대는 「전통무예」, 20부터 50대는 「전통식품」, 60세 이상은 「민속놀이」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임

<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

(단위 : %)

	계	관심 있음	소계	전통 예절 및 의식	민속 놀이	전통무용· 음악	전통 복장	전통 식품	전통 건축	공예, 미술	전통 무예	기타
2004	100.0	47.0	100.0	14.8	14.2	13.5	4.6	27.1	14.9 ¹⁾		10.9	0.1
2007	100.0	55.0	100.0	13.6	14.4	16.4	4.5	24.7	9.6	8.8	7.9	0.1
도 시(동 부)	100.0	56.0	100.0	13.4	13.5	16.5	4.6	25.0	9.8	9.1	8.0	0.1
농어촌(읍면부)	100.0	50.3	100.0	14.3	19.0	15.7	3.9	23.1	9.0	7.7	7.3	0.1
남 자	100.0	52.7	100.0	14.6	20.6	12.3	2.1	15.3	14.4	6.8	13.6	0.1
여 자	100.0	57.1	100.0	12.6	8.8	20.0	6.6	32.9	5.4	10.6	2.8	0.1
15~19세	100.0	49.8	100.0	7.4	12.0	15.7	10.6	15.7	8.2	12.7	17.5	0.1
20~29세	100.0	53.1	100.0	11.0	8.4	14.6	7.6	21.8	11.7	13.2	11.5	0.1
30~39세	100.0	61.8	100.0	9.5	11.0	15.7	3.4	27.4	11.3	12.0	9.5	0.1
40~49세	100.0	60.9	100.0	13.5	13.5	15.6	3.3	29.1	10.8	7.2	6.8	0.0
50~59세	100.0	54.9	100.0	18.9	18.3	16.6	3.1	26.0	8.5	4.7	3.8	0.0
60세 이상	100.0	43.6	100.0	21.4	25.7	21.1	3.0	19.3	4.2	3.2	1.9	0.1

주 : 1) 2004년에는 전통건축, 공예, 미술 포함

통계자료 99쪽

【 소득과 소비 】

1. 소득 만족도

소득만족도에 대하여 「보통」 이상은 10명 중 5명 정도

- 2007년 1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64.0%로 2003년(63.5%)보다 0.5%p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8.0%, 여자는 50.7%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40대가 가장 높고, 30대, 50대 순임
- 소득이 있는 사람 중 소득의 「만족」 비율은 10.0%, 「보통」은 36.5%이며, 「불만족」의 비율은 53.5%로 2003년(49.1%)보다 4.4%p 증가함
 - 연령대로 보면 「만족」 비율은 30대가, 「불만족」 비율은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0대를 제외하고 「불만족」의 비율이 50%를 넘음

< 소득 만족도 >

(단위 : %)

	계	소득 있음	만족	매우	약간	보통	불만족	약간	매우	소득 없음
2003	100.0	63.5	11.9	1.3	10.6	39.0	49.1	35.5	13.6	36.5
남 자	100.0	78.2	11.7	1.3	10.4	39.0	49.3	35.4	13.8	21.8
여 자	100.0	49.4	12.3	1.4	10.8	38.9	48.9	35.5	13.4	50.6
2007	100.0	64.0	10.0	1.1	8.9	36.5	53.5	35.7	17.8	36.0
남 자	100.0	78.0	10.1	1.1	9.0	36.2	53.7	35.2	18.5	22.0
여 자	100.0	50.7	9.8	1.2	8.7	37.0	53.2	36.4	16.8	49.3
15~19세	100.0	7.6	8.7	1.5	7.2	43.8	47.4	34.5	12.9	92.4
20~29세	100.0	61.2	9.4	1.1	8.3	38.4	52.3	37.4	14.9	38.8
30~39세	100.0	73.3	11.6	1.0	10.6	37.4	51.0	34.2	16.8	26.7
40~49세	100.0	77.1	9.5	1.1	8.4	34.0	56.5	35.9	20.7	22.9
50~59세	100.0	71.6	9.2	1.0	8.2	35.6	55.2	35.8	19.4	28.4
60세 이상	100.0	59.3	9.9	1.6	8.3	37.7	52.4	36.0	16.5	40.7

통계자료 100쪽

2. 현재 소득 수준에 대한 인식

본인 노력에 비해 현재의 소득수준이

「보통」 이상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4명임

- 소득이 있는 사람 중 본인 노력에 비해 현재의 소득수준이 「높다」는 4.7%, 「보통」 37.1%,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58.2%임
 - 여자가 남자보다 「보통」 이상의 비율이 높음
 - 연령대별로 「높다」와 「보통」 이상의 비율은 10대, 60세 이상, 20대 순이며, 「낮다」의 비율은 40대, 50대, 30대 순임
- 소득유형별로 보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업소득이 62.8%로 많이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재산소득은 39.7%로 적게 나타남

< 현재 소득 수준에 대한 인식 >

(단위 : %)

	계 ¹⁾	높음	매우	약간	보통	낮음	약간	매우
2007	100.0	4.7	0.6	4.1	37.1	58.2	34.5	23.7
도 시(동 부)	100.0	4.6	0.5	4.1	37.1	58.3	34.7	23.6
농어촌(읍면부)	100.0	5.1	0.7	4.3	37.4	57.6	33.4	24.2
남 자	100.0	4.6	0.5	4.1	35.8	59.5	34.6	24.9
여 자	100.0	4.8	0.6	4.2	39.0	56.1	34.2	21.9
15~19세	100.0	4.4	0.5	3.9	46.2	49.5	29.7	19.8
20~29세	100.0	5.1	0.5	4.6	39.0	55.8	37.0	18.8
30~39세	100.0	4.9	0.6	4.4	37.3	57.8	37.1	20.8
40~49세	100.0	4.7	0.6	4.1	33.3	62.0	35.8	26.2
50~59세	100.0	4.4	0.5	3.9	34.8	60.8	32.7	28.1
60세 이상	100.0	4.2	0.5	3.7	42.8	52.9	27.9	25.0
근로소득	100.0	4.7	0.5	4.2	36.0	59.3	37.2	22.1
사업소득	100.0	4.5	0.5	4.0	32.7	62.8	32.7	30.1
재산소득	100.0	6.5	1.2	5.4	53.8	39.7	22.0	17.7
기타소득	100.0	4.8	0.7	4.0	52.9	42.3	22.0	20.3

주 : 1) 현재 소득 있는 사람

통계자료 101쪽

3. 장래 소득에 대한 기대

앞으로 소득이 「증가」 하거나 「동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8명임

- 소득이 있는 사람 중 앞으로 소득수준이 「증가」 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41.9%, 「동일」 36.4%, 「감소」 21.8%임
-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이 농어촌보다 「증가」 할 것이라는 생각이 많음
- 연령대별로는 「증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0대(70.3%)가 가장 많고, 10대(63.4%), 30대(60.5%) 순이며, 「감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0세 이상(41.5%)이 가장 많고, 50대(38.2%), 40대(22.2%) 순임
- 소득유형별로 보면 「증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근로소득자(49.6%)가, 「감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업소득자(35.6%)가 가장 많음

< 장래 소득에 대한 기대 >

(단위 : %)

	계 ¹⁾	증가	동일		감소			
		크게	약간	약간		크게		
2007	100.0	41.9	5.6	36.3	36.4	21.8	15.6	6.2
도 시(동 부)	100.0	44.0	6.0	38.1	36.3	19.6	13.7	5.9
농어촌(읍면부)	100.0	32.0	3.7	28.3	36.6	31.4	23.7	7.7
남 자	100.0	44.2	6.3	37.9	33.5	22.4	15.7	6.6
여 자	100.0	38.5	4.5	33.9	40.6	20.9	15.3	5.6
15~19세	100.0	63.4	25.5	37.9	27.5	9.0	6.2	2.9
20~29세	100.0	70.3	14.0	56.3	24.7	5.0	4.1	0.9
30~39세	100.0	60.5	7.2	53.3	30.3	9.1	6.9	2.3
40~49세	100.0	39.2	3.5	35.7	38.7	22.2	16.5	5.7
50~59세	100.0	21.9	1.7	20.2	39.8	38.2	25.6	12.6
60세 이상	100.0	7.9	0.5	7.4	50.6	41.5	29.1	12.3
근로소득	100.0	49.6	6.2	43.4	34.0	16.4	11.4	5.0
사업소득	100.0	31.1	5.1	25.9	33.4	35.6	26.2	9.4
재산소득	100.0	18.6	3.2	15.4	49.2	32.2	24.7	7.5
기타소득	100.0	18.6	2.7	15.9	58.7	22.7	15.8	7.0

주 : 1) 현재 소득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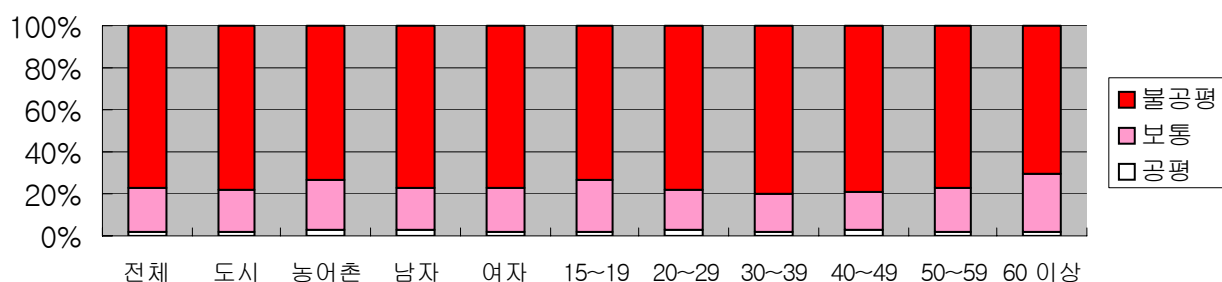
통계자료 102쪽

4. 소득분배에 대한 견해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에 대하여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6.9%임

-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빈부격차 등)에 대하여 「공평하다」 2.3%, 「보통」 20.8%,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6.9%임
-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보다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음
-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음
- 연령별로 「공평하다」는 20대가 2.8%로 가장 많고, 40대(2.4%), 50대(2.3%) 순인 반면, 「불공평하다」는 30대가 80.3%로 가장 많고, 40대(78.9%), 20대(77.8%) 순임

소득분배에 대한 견해



< 소득분배에 대한 견해 >

(단위 : %)

	계	공평	매우	약간	보통	불공평	약간	매우
2007	100.0	2.3	0.5	1.8	20.8	76.9	42.8	34.1
도 시(동 부)	100.0	2.2	0.5	1.7	20.0	77.8	43.0	34.8
농어촌(읍면부)	100.0	2.7	0.5	2.2	24.4	72.9	42.1	30.8
남 자	100.0	2.5	0.6	2.0	20.4	77.1	42.4	34.7
여 자	100.0	2.0	0.4	1.6	21.2	76.7	43.2	33.5
15~19세	100.0	2.2	0.4	1.8	24.2	73.5	42.2	31.3
20~29세	100.0	2.8	0.7	2.2	19.4	77.8	42.1	35.7
30~39세	100.0	2.0	0.4	1.6	17.6	80.3	42.6	37.7
40~49세	100.0	2.4	0.5	1.8	18.7	78.9	43.2	35.7
50~59세	100.0	2.3	0.5	1.8	20.8	76.9	42.6	34.3
60세 이상	100.0	2.0	0.3	1.6	27.1	70.9	43.8	27.2

통계자료 ☞ 103쪽

5. 소비생활 만족도

현재 소비생활의 만족도에 「보통」 이상은 53.8%, 「불만족」은 46.2%임

-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만족」한 사람은 10.2%, 「보통」 43.6%, 「불만족」 46.2%임
- 「만족」한 사람은 2003년(11.2%)에 비해 1.0%p 감소한 반면, 「불만족」한 사람은 2003년(41.5%)에 비해 4.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만족」한 사람을 연령대로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60세 이상 제외) 적어지고, 「불만족」은 40대(50.6%), 50대(49.4%), 60세 이상(46.4%) 순으로 나타남
- 「만족」한 사람을 직업별로 보면 전문관리직이 16.5%로 가장 높고, 사무직(13.7%), 농어업(9.3%) 순이며, 「불만족」은 서비스·판매직이 53.1%로 가장 높고, 기능·노무직(52.0%), 농어업(44.6%) 순으로 나타남

< 소비생활 만족도 >

(단위 : %)

	계	만족	매우	약간	보통	불만족	약간	매우
2003	100.0	11.2	1.4	9.8	47.4	41.5	31.2	10.3
2007	100.0	10.2	1.2	9.0	43.6	46.2	33.3	13.0
남 자	100.0	10.4	1.3	9.1	44.4	45.2	32.4	12.8
여 자	100.0	9.9	1.1	8.8	42.8	47.3	34.1	13.2
15~19세	100.0	15.0	2.9	12.0	45.0	40.0	30.2	9.8
20~29세	100.0	12.0	1.6	10.4	46.1	41.9	31.2	10.7
30~39세	100.0	11.0	1.0	10.0	43.5	45.4	32.6	12.8
40~49세	100.0	9.0	1.0	8.0	40.3	50.6	35.0	15.6
50~59세	100.0	8.1	0.8	7.3	42.5	49.4	34.4	15.0
60세 이상	100.0	8.2	0.9	7.3	45.4	46.4	34.3	12.0
전문관리직	100.0	16.5	1.5	15.0	47.7	35.7	27.9	7.8
사무직	100.0	13.7	1.5	12.2	48.6	37.6	29.7	8.0
서비스·판매직	100.0	7.4	0.8	6.5	39.5	53.1	37.1	16.0
농어업	100.0	9.3	1.0	8.2	46.2	44.6	34.8	9.8
기능·노무직	100.0	6.2	0.5	5.7	41.8	52.0	36.1	15.9

통계자료 104쪽